

광 고

원양산업

제 1152 호
(2022년 1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정부-원양업계간 소통 간담회 개최 / 4
- 선원정책 로드맵 관련 업계 의견 제시 / 5
- CCAMLR 보존조치 관련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 6
- 해외수산협력센터, 오만 수산투자 설명회 개최 / 7
- 라스팔마스 한인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 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22년 11월 보고 내용 / 9

요리 만들기

(공치조림) / 12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18.5% 하락 / 13

■ 참치어업 동향

- 12월 운송분 방콕 가다랑어 가격, 1,700 달러 이상 / 14
- 태평양 출신 여성, 참치 어업 최고위직 장벽 허물어 / 14

- WCPFC, 구속력 없는 가다랑어 관리절차 채택 / 15
- 미국, WCPFC에 기후변화 의제 포함 촉구 / 15
- 10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40% 증가 / 16
- 日 냉동 눈다랑어 10월 수입가격 kg당 1,087 엔 / 16
- 日 10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 17
- 나우루, 태국 참치 공급 2위 국가 / 18
- 태국 참치 수입 중 태평양도서국산 비중 절반 / 19
- 대만 FCF, SPC와 생분해성 FAD 개발 협력 / 19
- 태국 3분기 참치캔 수출 1억 6,600만 달러 / 20
- 태평양 도서국, 태국 참치캔 수입 계속해서 증가 / 20
- 2021년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전 세계 54% / 21
- 2021년 중서부태평양 연승선 어획량 9% 감소 / 22
- 만타 가다랑어 가격 5년 내 최고치 유지 / 23
- WW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녹색 아니다. / 23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지난달 대비 2% 상승 / 24
-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수요 둔화로 하락세 / 24
- ICCAT, IUU 지원 기업 조치 합의 / 25
- ICCAT 자원 상태 보고서 / 26
- 관리 조치가 참치 자원 개선에 미친 영향 / 27
- EU 참치캔 가공업체, 로인으로 수입 전환 가속화 / 28
- EU 참치 및 수산물 가격 급등 / 28
- 英, 상어·가오리 혼획 방지기술 개발 / 29

Contents

-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식 채택 / 30
- 타이유니온, 인도양 연승선 선원 복지 해상평가 / 30
- 중국 Ocean Family, MSC 3대양 인증 목표 / 31
- 中 기업 산하 스페인 참치캔 공장 가동 / 31

■ 오징어어업 동향

- 포클랜드 Orion사, 트롤선 신조 계약 체결 / 32
- 페루 대왕오징어만새기 어업자 협회 결성 / 32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새로운 조업구역에서 추가 어획 계획 / 33
- 러시아, 올해 명태 연육 생산 3~4배로 증가 / 33
- 美 베링해 명태 ABC안 52% 증가 / 34
- 러시아, 명태 등 자원이용세 인상 / 34
- 러시아, 제2차 투자쿼터 프로그램 승인 눈앞 / 35
- 러시아 연구소, 오후츠크해 명태 자원 긍정적 전망 / 36
- VARPE, 어선단 개조 연간 보조금 15억 루블 요구 / 36
- 중국 명태 부문, 올해 이익 증가 / 37
- 러시아, 중국 수산물 수출 51% 증가 / 37
- 日, 태평양동해 명태 TAC안 제시 / 38
- 노레보, 조선사 Pella 인수 / 38

■ 꽁치어업 동향

- 日 꽁치 11월 어획량 누계 1만 7,869톤 / 39
- 러시아, 2023년 꽁치 등 어획 권고량 발표 / 39

■ 각국 수산 동향

- Friend of the Sea, 친환경 라벨 꾸준히 확장 중 / 40
- 수산물 해운 보험료, 대폭 인상 추세 끝나 / 40
- 러시아 수산 기업, 견습인턴십 프로그램 투자 증대 / 41
- 日 연구기관 “어육 단백질, 체내 흡수 쉬워” / 42
- 새 FDA 규정, 美 수산물 공급 이력추적 요건 강화 / 43
- 美 수산물 매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타격 / 44
- FDA, 세포배양육 제품 최초 승인 / 44

■ 쉬어가는 난 (시)

- 바다 <김소월> / 45

■ 국내 수산 정보

-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6
- 11월 명태 국내 동향 / 48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상어 보존조치 합의 / 50
- 태평양 도서국과 해양수산 국제협력 회의 개최 / 50
-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 50
-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 선정 / 51
- 북극점에서 남극 내륙까지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 52
-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제1차 당사국총회, 한국 인천 개최 / 53
- 미 FDA, 영유아 수산물 섭취 안전성 연구 착수 / 53
- 우리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 개막 / 54
- 공적자금 굴레벗은 수협, 새출발 다짐 / 54

정부-원양업계간 소통 간담회 개최

업계 현안 사항 건의



정부-원양업계간 소통 간담회가 지난 12월 9일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3일 회장단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방문해 정례적 소통 자리 마련을 요청한 것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응답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경양수산 박길주 대표,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

원산업 이명우 부회장, 민은홍 대표, 동원수산 왕기철 부회장,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 신라교역 김호운 대표,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티앤에스산업 정태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우리 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관심과 업계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해기사 부족 등 현안 사항들을 건의했다.

조승환 장관은 우리 업계 건의에 귀 기울이며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관련 건을 논의했다.

선원정책 로드맵 관련 업계 의견 제시

2022년 제12차 노사위원회 개최...선원정책과장 배석



우리 협회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22년 제12차 노사위원회를 지난 11월 1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사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박상진 노사위원장(대행), 동원수산 박진수 부장, 사조산업 박진석 팀장, 신라교역 안길환 본부장, 아그네스수산 김학조 이사, 원양물산 김영일 대표, 정일산업 지건웅 부장, 우리 협회 이형

균 경영지원본부장,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석훈 과장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안전들을 정리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으로 추후 TF, 공청회,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연말 정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김석훈 과장은 정부 검토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우리 업계 참석자들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CCAMLR 보존조치 관련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개정 보존조치 내용 등 주요사항 설명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 관련 사무국 전문가 초청 설명회가 지난 11월 22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 업계 및 협회는 관련 선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보존조치 준수를 위해 2020년부터 매년 CCAMLR 사무국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CCAMLR 사무국 전문가 Isaac Forster 와 국립수산물과학원 정상덕 연구사, 동원산업 공득화 과장, 김윤형 주임, 정일산업 지건웅 부장, 박강휘 부장, 티앤에스산업 정태빈 대표, 조양식 이사, 최현중 부장, 흥진산업 배갑주 대표, 이해준 부장, 우

리 협회 진호정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CAMLR 개정 보존조치 내용, 연구양망(Research Hauls) 관련 사항, 개정된 C2 어획보고 양식 작성방법, 향후 주요 회의 및 워크숍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조업선사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CCAMLR 「이행위원회」의 지난해 보존조치 이행평가 결과 10개 이빨고기 조업국 중 유일하게 모든 규정을 준수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2023년 우리나라의 CCAMLR 수역 허가 척수는 9척(이빨고기 6척, 크릴 3척)이다.

해외수산협력센터, 오만 수산투자 설명회 개최

국내외 저명 연사 강의, 진출 정보 및 네트워킹 지원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는 오는 12월 8일 세종시 위드워크 8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수산분야 투자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해외수산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해외수산투자 활성화 사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1개국을 선정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양 해양교역의 거점이며, 물류 중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오만의 수산 및 투자 정책과 진출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만 농수산부 Hilal Al Mezeini 양식개발과장과 오만 어업개발 자회사인

Blue Water의 Hilal Al Mezeini 매니저의 ‘오만 양식업의 현재와 미래’, ‘오만 연안 가두리양식 개발 현황’ 발표가 있었다.

또한, 오만 술탄카부스대학 윤길하 교수가 ‘오만의 양식업 현황과 한계점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고, Kotra Oman Muscat 무역관 송지영 관장이 ‘오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외에도 오만을 거점으로 현지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주)천관의 이승인 상무가 투자 성공 경험담을 발표했다.

해외수산협력센터는 발표 영상 및 자료를 조만간 홈페이지(<https://www.ofis.or.kr>)에 게시할 것이며, 추후 ‘2022년도 오만 원양산업종합정보’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라스팔마스 한인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

과거 원양어업 전성기 이끌어...산업화 초기 경제성장 기여 인정 받아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내일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장보고 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라스팔마스 한인회는 1960년대 대서양에 원양어업 기지를 개설하여 한국 원양산업의 전성기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966년부터 1987년까지 약 1조 원의 외화를 우리나라에 송금하여 산업화 초기 한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이학곤 인천 신석초등학교 교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은 한국해양대 이용희 교수, 해양수산부장관상은 박중기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받았다. 특별상인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내일신문 사장상은 (주)도서출판 보리와 (주)은하수



산이 각각 수상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신 라스팔마스 한인회 등 여섯 수상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정신이 끊임없이 계승돼 해양수산업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원사 대표자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동원산업(주)	이명우 대표 * 사업·지주부문 부회장 선임	민은홍 대표 * 부사장, 사업부문 대표 선임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다카르 자치항 신임 사무총장 취임

- Mountaga Sy, 다카르 자치항 (이하 PAD)의 신임 사무총장직 취임.

- Sy 사무총장은 PAD가 세네갈 구매력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나.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	977 €/MT	경유	'22.11.25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502
	1.8kg	1,453
	1.5kg	1,308
황다랑어	10kg	1,647
	3.4kg	1,550
	1.8kg	1,453
눈다랑어	10kg	1,502
	3.4kg	1,502
	1.8kg	1,453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3분기 수출통계 분석

- 피지 통계국은 올해 3분기까지의 수출통계 분석보고서에서 이탈리아 수출이 3,5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자메이카 수출도 1,34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힘. 주요품목은 설탕, 나무 장신구, 당밀(사탕수수가공 부산물).
- 주요 수출국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시장 수출이 감소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피지의 통가, 윌리스푸투나, 쿡제도, 미국령사모아로의 상품 재수출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참치수출은 항공편의 어려움 및 어획부진으로 감소하였음.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1,200달러/MT	MGO	'22.12.09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3~0.8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3톤임.

나. 아메리칸사모아, 코로나19 비상선포 해제

- 아메리칸 사모아 총독 Lemanu Peleti Mauga는 12월 1일 코로나19 비상선포 해제를 발표.
- 이 기간 동안 총 8,264건의 감염이 있었으며 그 중 회복은 8,229건. 누적 사망자 수는 34명.
- 아메리칸사모아 인구의 85%가 2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91%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
- 비상사태 선포는 2020년 1월이었고 같은 해 3월 아메리칸사모아 진입 항공편이 중단됨.
- 백신, 부스터샷, 검사, 치료 및 기타 완화조치는 계속 제공 예정.
- 비상사태 해제 후에도 마스크 착용, 청결 및 소독, 감염증상자 접촉 자제 등 권고사항은 계속될 예정.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라.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4.29(gallon)	'22.12.5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SK해운 소속 B.Ocean호, 올 해 2번째 해적 피랍

- 외교부에 따르면, 마셜제도 선적의 SK해운 싱가포르 법인 소유 4,000톤급 유류운반선 B.Ocean 호가 11월 24일 오전 7시 (한국시간) 경 코트티부아르 아비잔 항으로부터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양상병커링 사업에 종사 중에 해적에 붙잡혀 연락이 두절.
- 해적들은 B.Ocean호를 남쪽으로 90마일 강제 이동시킨 후 배에 실려 있던 유류 약 3,000톤(30억 상당)과 현금을 탈취하였고, 배에서 내리기 전 선내 통신장비와 주 기관 등 운항 장비도 파손함.
- 25일 오전 11시 55분쯤 B.Ocean호와 연락이 재개되면서 한국 국적 선장과 기관장, 인니선원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
- 피랍된 B.Ocean호는 올 1월 24일에도 아비잔항 남방 50마일 부근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바 있음.
- 지금까지는 기니만 해적이 항행 거리가 짧은 스피드 보트를 이용해 주로 육지와 가까운 50~150마일 사이에서 활동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번 B.Ocean호는 200마일 EEZ 밖에서 피랍됨.
- 우리 정부는 이번 피랍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 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 위기경보 수준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 해적의 습격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연료유 수급을 출어 전, 해적의 출몰이 불가한 안전한 항구 근처에서 하는 것이 권장됨.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2,200	
	10kg 하	1,760	
가다랑어	3.4kg 상	1,400	
	1.8kg 상	1,350	
	1.5kg 상	1,200	
	1.5kg 하	1,05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양상급유	1,260달러/kl	MGO	'22.11.30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규격	기타
생물 자연산 바다가재	31.58달러	0.6~1kg	
	41.63달러	1~1.5kg	
	53.12달러	1.5kg 이상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1.0366달러/리터	Diesel	'22.12.7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PNG 해양수산업 동향

- 지난 10월 PNG 수산청 및 해당 장관, 수산업체들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수산 EXPO에 참여를 하였음.
- 수산청에서는 싱가포르에 자국 Mud-Crab의 효율적 판매 및 자국 업자의 마케팅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모습은 이례적으로, 현 수산청장은 자국 수산업체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수산청의 자금운영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미루어 볼 때 현재 PNG에서는 수산분야에 있어 자국 소규모 수산업 발전, 자국민 참여 및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음.





꽁치조림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꽁치 3마리, 대파 1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식용유 1큰술

<양념 재료>

다진마늘 2큰술, 대파 1대, 고추가루 2큰술, 간장 1/2컵, 맛술 1/2컵, 참기름 1작은술,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꽁치를 손질 후 4등분 한다.
- ② 대파는 반으로 가른 후 송송 썰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③ 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 양념재료를 넣고 끓인다.
- ④ 3의 양념에 손질한 1의 꽁치를 넣어 약불에 15분간 졸인다.
- ⑤ 4의 졸인 꽁치를 그릇에 담고 2의 썬 대파와 청고추, 홍고추를 올려 완성한다.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18.5% 하락 월 평균으로 보면 11% 하락

최근 국제유가는 캐나다 키스톤 송유관 누출 사고에 따른 공급 불안, 국제에너지기구(IEA) 수요 전망치 상향 소식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14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7.67 달러, WTI 가격은 77.28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2.70 달러를 기록했다.

12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81.25 달러로 11월 9일(1,081.50 달러) 대비 18.5%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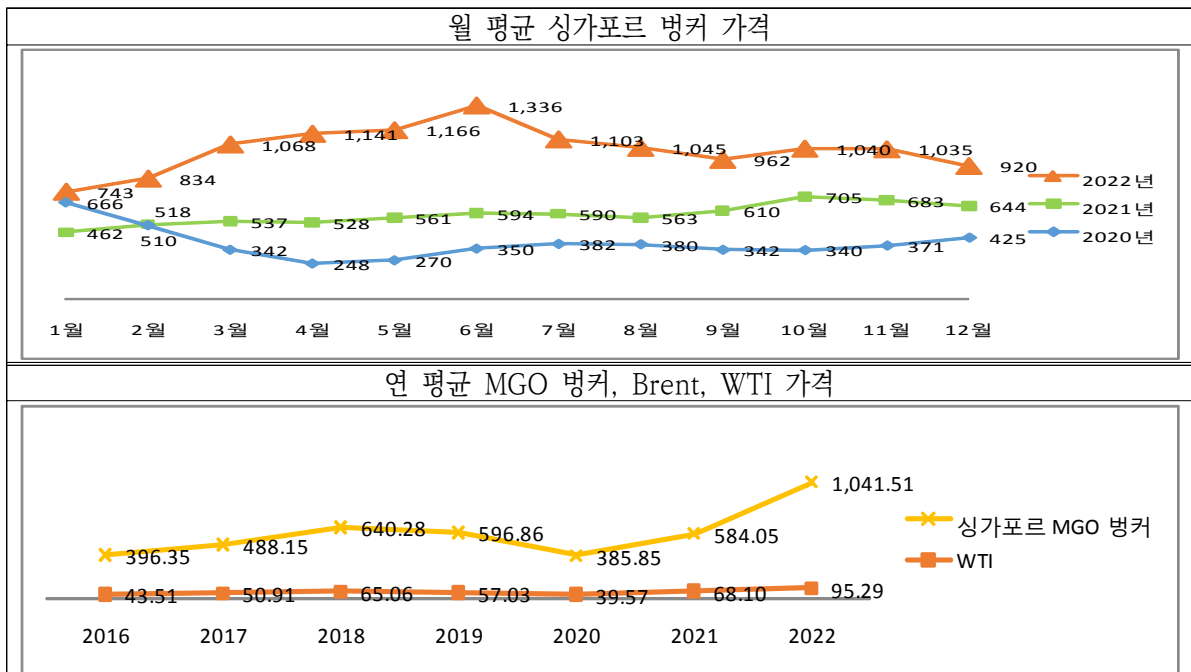
12월 평균(12.1~12.9) 가격은 920 달러로 전월 평균(11.1~30) 1,035 달러 대비 11% 하락했다. 전년 12월(12.1~31) 평균과 비교해서는 43%, 전전년 12월과 비교해서는 116% 상승했다.

2022년 평균(1.1~12.9) 가격은 1,041.51 달러로 전년(1.1~12.31) 평균 대비 78% 상승, 전전년 평균

대비 170% 상승했다.

IEA는 12월 14일 월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23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보다 하루 14만 배럴 상향했다. 내년 원유 수요 증가는 하루 170만 배럴로 기존보다 10만 배럴 높였다. IEA는 전 세계 올해 총 원유 수요가 하루 9,990만 배럴에 달하고, 내년에는 하루 1억1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2월 13일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가 각각 하루 250만 배럴, 2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수요 증가 원인으로 IEA는 중국의 수요 회복과 더불어 유럽에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경유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12월 운송분 방콕 가다랑어 가격, 1,700 달러 이상 톤당 100 달러 이상 급상승

미국에 기반을 둔 한 중계업자는 최근 “오늘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600 달러이나 앞으로 며칠 안에 12월 운송분 거래가 톤당 1,700 달러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12월 운송분 가다랑어 거래가 톤당 1,700~1,750 달러에 체결되었다. 소식통은 “높은 연료비용으로 인해 대형 선망선이 이윤을 남기려면 최소 톤당 1,600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아시아와 유럽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1월 29일 시점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이미 톤당 1,700~1,750 달러에 도달했으며, 톤당 1,710 달러에 체결된 거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관리협회의(MSC) 인증 가다랑어는 방콕에서 톤당 1,850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했고,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는 톤당 1,900 달러를 기록했다.

한 소식통은 동부에서 FAD에 어류가 군집되지 않아 태평양에서의 모든 조업이 서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 동부에서 어업이 시작된다면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몇몇 소식통은 가격이 단시간 내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미국 중계업자는 대서양 인도양 등에서의 어획량과 공급 감소로 인해 1월 가격이 12월 가격 수준에서 하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은 여전히 톤당 1,850~1,900 달러 수준이며, 세이셸과 아비장의 가다랑어 가격은 톤당 1,400 유로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30일자

태평양 출신 여성, 참치 어업 최고위직 장벽 허물어

WCPFC 사무국장·의장 태평양 출신 여성이 차지

태평양 출신 여성들이 참치 어업의 선두에 서고 있다. 마이크로네시아 출신 Rhea Moss-Christian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Josie Tamate가 새로운 의장이 되었다. 이로써 의장은 3번 연속으로 여성이 차지했다.

Moss-Christian은 수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경영자과정(MBA)을 거의 수료한 상황이다. 아울러, WCPFC에서 독

립 컨설턴트로 2년 동안 근무했다.

Josie Tamate는 니우에 출신으로 1999년에 태평양수산위원회(FFA)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외 태평양 참치 관련 기구의 여성 고위직으로는 PNA CEO인 Sangaalofa Clark와 태평양수산위원회(FFA) 사무총장인 Manumatavai Tupou-Roosen(통가 출신)이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6일자



WCPFC, 구속력 없는 가다랑어 관리절차 채택

눈다랑어 관련 MSC 요구 일부 반영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가다랑어에 관한 관리절차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퓨 자선재단은 가다랑어에 대해 현대화된 관리 계획을 채택한 WCPFC의 결정을 칭찬했다. “이러한 약속은 어업을 단기적이고 반응적인 의사 결정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전을 설정하고 해당 연도에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어류를 잡을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규칙을 고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퓨의 국제어업 프로젝트 책임자인 Glen Holmes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이러한 과학기반 계획을 비구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Holmes는 “이는 관리절차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종의 장기적인 자원 건강을 위협한 상태로 계속 남겨두는 장기적이며(오래 끄는) 잠재적인 정치적 협상을 허용할 수 있다”며 “자원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안정

적인 시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들은 이 결정을 다시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리절차의 충분한 이점을 현실화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눈다랑어의 경우 2014년 어획관리 수립을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에 대한 FFA 수정안이 채택됐다. 위원회가 자원이 지속생산가능한자원량(BMSY)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어획통제규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새로운 단락이 추가될 것이다. 해당 단락 추가의 목적은 독립심사관이 눈다랑어에 대한 PNA MSC 인증 거부 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추가된 단락은 중요하며 PNA 등의 MSC 인증에 길을 열어준다. MSC 독립심사관은 △눈다랑어에 대한 어획통제규칙을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 △자원을 BMSY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약속, 2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어선원 복지에 관한 논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5일자,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5일자

미국, WCPFC에 기후변화 의제 포함 촉구

참치 자원 변화와 태평양도서국 경제 영향 이해·해결 강조

미국은 열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9차 연례회의에서 WCPFC가 기후변화를 상설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참치 회유경로의 변화는 태평양도서국의 식량 및 경제 안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제안서에서 “협약 구역에서의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CCM(위원회 구성원, 협력자, 비회원)의 경제와 식량안보·생계(특히 군소도서개발국과 참여 속령(Participating Territories))에 대한 모든 관련 영향의 이해와 해결”을 강조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8일자



10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40% 증가

일일 평균 어획량 32톤으로 평년 수준

FAD 조업 금지가 해제되면서 10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은 12만 6,207톤으로 9월 9만 311톤 대비 40% 증가했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10월에 비해서는 적었다. 2019년 10월 어획량은 15만톤에 달했다.

조업은 여전히 서부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분포는 9월과 달랐다. 서부 수역 어획량은 거의 6만톤으로 모든 조업 수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9월에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10월에는 9월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공해, 투발루, 솔로몬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증가했다.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조업 노력은 9월 대비 10% 증가했다. PNA EEZ에서 3,000일 이상의 조업일수가 사용되었다. 파푸아뉴기니(PNG)와 마이크로네시아 수

역에서 사용된 조업일수가 전체의 60%에 달했다.

PNA 수역과 공해에서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32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평균 어획량에 근접한 수치이다. PNG 수역에서의 일일 평균 어획량은 9월에 17톤에 불과했으나 10월에는 거의 39톤에 이르렀다. 공해 어획량은 11톤 더 많았다. 마이크로네시아는 27톤이었으며 나우루는 31톤이었다.

가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28톤으로 9월 대비 6톤 많았다. 이는 2019년, 2020년 10월 수준에 근접한 것이며, 2021년 10월 16톤 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

황다랑어 치어와 눈다랑어(9kg 이상) 어획량은 9월 대비 증가했다. 대형 황다랑어 일일 평균 어획량은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1톤 미만이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9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10월 수입가격 kg당 1,087 엔

올해 2월 이후 첫 가격 하락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 10월 수입실적은 선아냉장 수입량 527톤(전년도 10월 대비 12% 증가), 수입액 13억 1,300만 엔(49% 증가), 냉동 수입량 1만 6,407톤(39% 증가), 수입액 161억 7,500만 엔(56% 증가), 가공품 수입량 3,985톤(5% 감소), 수입액 33억 2,200만 엔(30%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만산의 10월 수입 단가는 kg당 1,087 엔

(17% 상승)으로, 9월 가격인 1,091 엔 대비 소폭 하락했다. 냉동 눈다랑어의 수입 가격은 올해 2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였으나 약 8개월 만에 가격이 하락했다. 한 관계자는 눈다랑어 가격이 한계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락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2월 6일자



日 10월 냉동 참치 원어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228톤 수입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누계
날개 다랑 어	한국	113	6	16	96	44	98	158	179	58	184	952
	대만	625	298	49	951	-	635	412	804	3,200	2,664	9,638
	바누아투	-	1	71	522	436	301	-	-	5	575	1,911
	기타	15	15	-	2	26	146	45	315	544	596	1,704
	소계	753	321	137	1,569	506	1,179	614	1,298	3,807	4,020	14,204
황다 랑어	한국	221	210	596	513	539	163	331	396	192	472	3,633
	중국	47	284	120	430	550	553	207	165	108	145	2,609
	대만	603	1,031	1,318	2,425	1,603	1,601	617	1,183	937	1,524	12,842
	필리핀	123	-	131	493	69	50	-	98	346	-	1,310
	인니	-	-	-	-	-	-	25	-	14	16	55
	미국	-	-	-	-	-	-	-	-	-	-	-
	바누아투	148	24	72	103	248	249	381	390	330	58	2,003
	피지	23	50	-	-	-	68	62	9	23	18	253
	키리바시	29	-	-	-	101	135	33	138	67	-	503
	마셜제도	551	-	149	50	51	50	-	50	68	146	1,115
	기타	564	587	568	1,316	410	815	555	504	692	1,287	7,298
	소계	2,309	2,187	2,954	5,329	3,573	3,685	2,210	2,933	2,777	3,665	31,623
눈다 랑어	한국	11	30	27	113	412	299	255	160	26	228	1,561
	중국	177	467	502	592	339	1,409	574	410	711	292	5,473
	대만	1,372	2,158	2,438	4,084	1,632	3,329	1,060	2,671	1,616	2,206	22,566
	세이셸	103	874	310	792	526	671	177	353	96	384	4,286
	바누아투	138	318	47	629	490	790	114	286	71	472	3,355
	기타	135	32	207	110	239	156	537	27	229	42	1,714
	소계	1,937	3,880	3,531	6,319	3,638	6,653	2,716	3,906	2,749	3,645	38,974
남방 참다 랑어	한국	449	-	-	-	-	-	-	-	-	265	714
	대만	95	5	-	2	4	1	-	8	89	490	694
	호주	-	-	-	-	-	-	1,547	1,243	2,949	375	6,114
	소계	544	5	-	2	4	1	1,547	1,251	3,038	1,130	7,521

* 기사 출처: 일간수산업경제신문, 2022년 12월 6일자



나우루, 태국 참치 공급 2위 국가

대만,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순

태국 참치캔 가공업체들은 3분기까지 지난해 대비 1% 증가한 54만 5,846톤의 냉동 참치원어를 수입했다. 이는 참치 가격이 지난해보다 톤당 평균 400 달러 정도 상승했지만 참치캔 가공업체와 최종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총 수입금액은 10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주로 가격 및 운임 상승에 기인한다.

3분기 참치 수입량은 18만 2,41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피트 컨테이너 1,014대분 정도 더 많았다.

〈원산지 상위 9개국〉

태국 수입 원산지 상위 9개국은 대만,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한국, 바누아투, 몰디브, 키리바시, 마셜제도, 일본이다.

대만산 수입량은 지난해 대비 3% 감소했지만 10만 2,497톤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CFR 기준 평균 수입금액은 1,959 달러이다.

나우루산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한국에 이은 4위였으나 올해 2위로 올라섰다. 나우루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한 6만 3,396톤을 기록했다. 2020년 동기와 비교하면 154%나 증가했다. 나우루로의 국적 변경 선박 증가로 수년 동안 나우루 국적 선망선 척수는 증가해왔다.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에 등록된 나우루 국적 선망선은 20척이다. 나우루는 지난해 중서부태평양 상위 10위 선망선단 보유국 리스트에 있었다. 지난해 생산량은 12만 113톤이다.

마이크로네시아산, 한국산, 일본산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1%, 11%, 74% 감소한 6만 2,541톤, 5만 3,537톤, 8,438톤을 기록했다. 반면, 바누아투산

수입량은 60% 증가한 4만 8,400톤이었다.

〈상위 9개국 외〉

투발루 참치 선망선단은 지난 3년 동안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다. 올해 투발루의 태국 수출량은 인도네시아, 중국을 넘어섰다. 3분기까지의 올해 수출량은 2만 732톤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38%, 2020년에 비해서는 547%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평균 수입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3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다. 수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대형 선망선이 투발루로 국적전환 되었기 때문이다.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기록에 따르면 투발루 국적선은 6척(9,956톤)이며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척의 이전 국적은 한국이다.

인도네시아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 증가한 1만 3,010톤이다. 중국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 감소한 1만 2,683톤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수출가격은 3,144 달러로 주요 9개국을 포함해도 가장 높다.

스페인 관리하에 운영되는 스페인과 세이셸 국적의 선망선 어획물의 방콕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9,912% 증가한 1만 7,514톤, 1,523% 증가한 7,816톤을 기록했다. 당시 인도양에서 가다랑어가 과잉 공급이 발생한 반면, 태국에서는 부족했었다. 높은 운송비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출가격은 시장 평균과 동일한 1,737~1,750 달러이다. 3분기에는 수출량이 없다.

미국 선단 어획물의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9% 감소한 117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2일자, 23일자



태국 참치 수입 중 태평양도서국산 비중 절반

태평양도서국산 수입량 2021년 대비 6%, 2020년 대비 61% 증가

최근 몇 년 동안 태평양도서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하는 참치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태국 참치 수출에 있어 나우루는 두 번째로 큰 공급국이 되었고 투발루는 신흥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올해 9월 누적 태국의 참치 원어 수입량은 54만 5,846톤이다. 이 중 49%에 해당하는 26만 5,912톤이 태평양도서국, 호주, 뉴질랜드 국적 선박이 어획한 어획물이다(호주·뉴질랜드 2,676톤에 불과). 이는

2021년 동기 대비 6%, 2020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수치이다.

바누아투 국적 선박에서의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0% 증가한 4만 8,400이다. 파푸아뉴기니와 마셜 제도는 각각 100% 증가한 4,287톤, 13% 감소한 2만 4,110톤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1일자

대만 FCF, SPC와 생분해성 FAD 개발 협력

엷힘 없고 생분해 가능

대만 어업·가공 그룹 FCF가 중서부태평양에서 사용될 엷힘 없고 생분해 가능한 FAD인 '젤리 FAD(Jelly FAD)'의 개발 협력을 위해 태평양공동체(SPC)와 협력 각서에 조인했다.

젤리 FAD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프로젝트 110의 일환으로,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이 설계했다. ISSF는 구조물의 크기를 줄여 젤리 FAD가 유실될 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색을 용이하게 했다.

젤리 FAD는 유실되거나, 버려지거나, 폐기될 시

환경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 자재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또한 젤리 FAD는 플라스틱 기반 자재 대신 100% 면, 대나무 등 생분해성 물질로 만들어져 FAD 부유 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들은 올해 첫 번째 젤리 FAD의 제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FCF는 10개월간의 해상 시험을 위해 프로젝트에 참가할 어선들의 젤리 FAD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1월 11일자



태국 3분기 참치캔 수출 1억 6,600만 달러

수출량 누계 약 36만톤

태국의 올해 3분기 참치캔 수출량 누계가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한편 톤당 평균 수출가격은 올해 상반기 대비 5.6% 상승했다.

태국의 올해 3분기 참치캔 수출량은 12만 1,463톤이었다. 1~3분기 누계는 총 36만 3,503톤이다. 평균 수출 가격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 상승한 톤당 4,553달러이다. 3분기 총 수출액 누계는 1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1억 2,300만 달러 대비 34% 증가했다.

주요 시장인 미국행 3분기 수출량은 2만 4,826톤, 3분기까지의 수출량 누계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한 총 7만 2,003톤이다. 평균 수출 가격은 4,850달러이며 총 수출금액은 5억 5,715만 달러이다. 지난 5년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낮았다. 2021년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했지만 아직 2018년, 2019년 수준으로 돌아오진 못했다.

제2위 수출 시장인 이집트행 3분기 수출량 누계는 지난해 동기와 거의 비슷한 4만 9,175톤을 기록했다.

리비아행 3분기 수출량 누계는 2만 5,581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나 3분기 수출량은 5,366톤에 그쳤다.

한편, 아랍에미리트(UAE)행 수출량 누계는 1만 6,547톤으로, 수출 평균 가격이 지난해 대비 톤당 1,022 달러 상승했음에도 2년 연속으로 수출량 성장에 성공했다.

이번 분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수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5년간의 3분기 누적 수출 금액을 통해서도 관측된다. 3분기 누적 수출 금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년도 대비 하락 추세였으나, 2022년 들어 반등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11일자

태평양 도서국, 태국 참치캔 수입 계속해서 증가

올해 3분기까지 6,689톤 수입

태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태평양 도서국 시장으로 수출된 참치캔은 약 6,689톤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량 대비 20피트 컨테이너 121대 분량(약 2,000톤)만큼 증가했다. 3분기까지의 총 수출액은 1,475만 달러였다.

지난 3년간 파푸아뉴기니(PNG) 유통업자들은 더 많은 양의 검은 살코기 참치캔을 계속해서 사들였다. 올해 3분기까지 검은 살코기 참치캔 수입량

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한 5,674톤이었다.

마이크로네시아와 마셜제도의 태국산 참치캔 수입량은 각각 4,801톤, 4,273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 18% 증가했다. 아메리칸 사모아 수입량은 3% 증가했다. 수입 단가가 톤당 4,482 달러임을 감안하면 수입 내역에 날개다랑어 참치캔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1일자



2021년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획량 전 세계 54% 총 어획량 2.5% 감소...가다랑어 감소, 황다랑어 증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2021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개요 및 자원 현황 보고서(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tuna fishery: 2021 Overview and status of stocks)'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수역 참치 어획량은 전 세계 참치 생산량(490만톤)에서 54%를 차지했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2.5% 감소한 263만 5,291톤이다. 2019년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는 35만 1,425톤 적었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 감소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황다랑어 어획량은 선망선에서의 어획량 증가로 6% 증가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했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3% 감소했으며 과거 5년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70% 수준인 183만 3,703톤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어획량 중 하나이며 정점인 2017년 210만톤 대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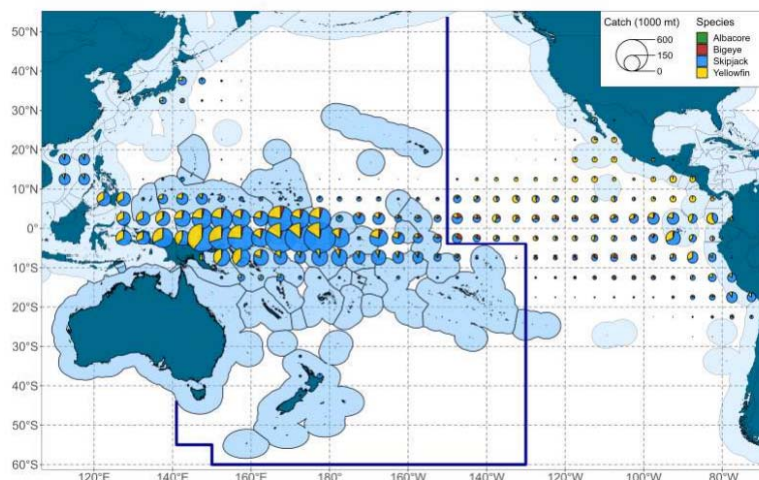
감소한 것이다.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132만 7,308톤이다. 선망선에서의 가다랑어 어획 비중은 82%이다. 반면 선망선 황다랑어 어획량은 2만 8,400톤 증가한 42만 9,959톤이다. 선망선 눈다랑어 어획량은 5% 증가한 7만 6,436톤으로 모든 어구 눈다랑어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선망선 조업 수역은 PNA 수역, 특히 파푸아뉴기니(PNG) 및 마이크로네시아(FSM), 공해와 같은 서부 수역에 집중되었다.

2021년 선망선 조업 노력은 감소했다. 선망선은 지난해 대비 4% 감소한 4만 7,828일의 조업 일수를 사용했고 5만 1,499회 투망했다.

선망선 국적은 태평양도서국이 146척, 원양어업국이 166척이다. 태평양도서국 국적 선망선 척수는 1979년 0척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4일자



2021년 중서부태평양 연승선 어획량 9% 감소 1993년 이후 가장 적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2021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개요 및 자원 현황 보고서(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tuna fishery: 2021 Overview and status of stocks)'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연승선 어획량은 19만 4,799톤으로 전업종 어획량의 7%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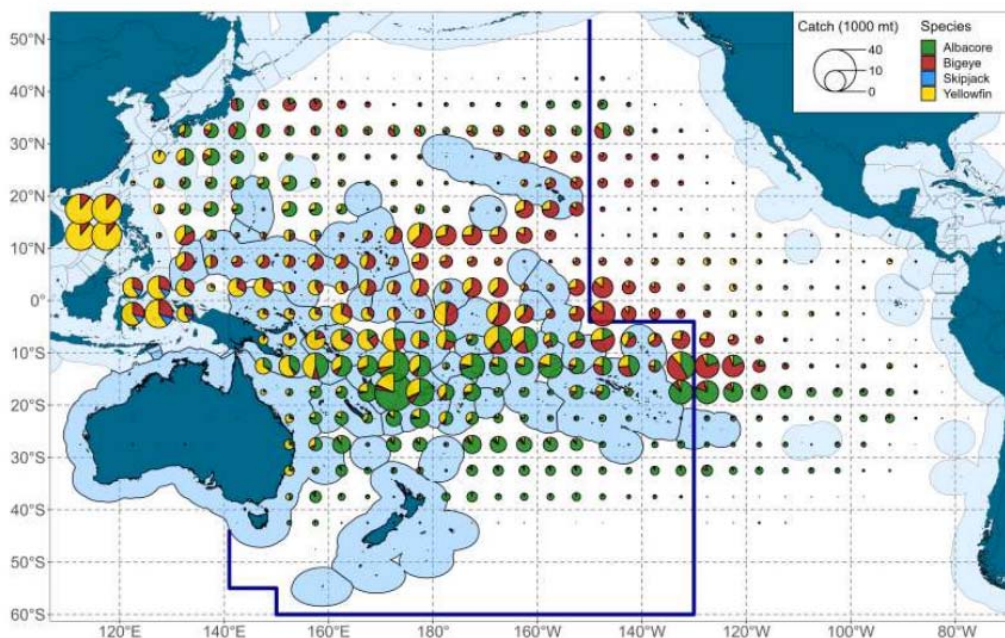
2020년 대비 9% 감소했으며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어획량이다. 정점인 2004년 어획량은 28만 5,000톤이었다.

상업용 연승선단(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 및 일본 연안 연승선 제외) 척수는 1994년 5,068척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1년 1,543척이다. 태평

양도서국 국적 선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1970년대 중반 '0'이었으나 25~31% 사이에서 변동되고 있다.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대비 13% 감소한 8만 2,040톤으로 정점인 2002년 14만 8,051톤에 비해 상당히 적었다.

연승선 어획은 남태평양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서부 수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어획량 증가의 대부분은 북위 20°S에서 조업하는 선박에 기인한다. 태평양도서국 국내 연승선단은 대부분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투발루 수역 인근 위도 10°-25°S에서 조업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5일자



만타 가다랑어 가격 5년 내 최고치 유지

지난달과 동일한 1,900 달러

현재 만타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1,900 달러로 5년 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 톤당 1,800 달러로 급등했고 10월 1,900 달러에 도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1,850 달러에서 몇 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참치캔 가공업자들이 참치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매우 불확실하다. 참치캔 가공업자들은 1,900 달러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격 흐름은 금어기 동안 조업하는 절반의 선박 조업 상황 개선 여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두 번째 금어기는 내년

1월 19일까지 앞으로 2개월 동안 이어진다. 시간이 흘러 참치캔 원재료 재고가 부족해지고 조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격이 급등해 2,000 달러선이 깨질 수 있다. 다만 지난 금어기 때 만타 시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원재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조업은 올해 대부분의 시기 동안 지난해 대비 좋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침내 개선되고 있지만 매우 느리다고 한다. IATTC 누적 데이터에 따르면 두 번째 금어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월까지의 가다랑어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최소 1만 1,000 톤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5일

WWF,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 녹색 아니다.

IATTC, ISSF 녹색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과학자문위원회(SAC)에서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라고 언급된 후 자원 재평가를 실시했지만 녹색 등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WWF 유럽의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에 대한 최신 점수는 주황색 또는 두 번째 선택(second-choice)이다. 다른 지역의 WWF 본부 웹사이트에서는 아직 적색으로 표기되고 있다.

반면,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과 같은 다른

기관은 보고서(중간 수준의 자원 상태로 표시)를 업데이트하며 건강, 녹색으로 변경했다.

WWF 독일의 수산물 담당자인 Franck Hollander는 IATTC의 자원 평가로 인해 개선이 있었지만 “WWF의 어업 평가 방법론은 자원 상태뿐만 아니라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 관리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며 “이 두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4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지난달 대비 2% 상승

일시적인 가격 하락 이후 2주 만에 상승

인도양 가다랑어 어획은 최근 몇 달 동안 양과 사이즈에서 모두 좋았다. 이로 인해 가격 폭락 공포가 일어나 세이셸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일시적으로 톤당 1,300 유로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주 만에 1,450 유로로 회복되었다. 10월 1,430 유로에 비해서는 2% 가까이 상승했다.

조업 종료 전에 1,500 유로로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

대부분의 인도양 선망선은 조업을 중단하고 항구에 정박해 있다. 이들은 할당된 황다랑어 쿼터를 소진해 이른 크리스마스 휴식을 취해야 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선망선은 인도양 수역에서 쿼터를 한계까지 소진한 상태이다. 일부 회사는 쿼터가 조금 남아있어 계속 조업하고 있다.

모리셔스에 있는 프린세스 참치 공장은 여전히 참치를 구매하고 있지만 타이유니온이 소유한 인도양 참치 공장은

거의 정지 상태이다. 타이유니온은 방콕과 가나 공장에서의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치를 구매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고 사이즈도 작다. 동부태평양의 두 번째 금어기는 참치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대서양 어획량은 오랜 기간 동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참치캔 세계 무역 수준은 감소했으며 특히, EU 시장의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오직 미국 소매업체들만이 가격이 낮은 제품이나 연승선 어획 날개다랑어를 구매하고 있다.

황다랑어 원어 거래는 끝나간다. 소수의 구매자만이 FOB 기준 2,500~2,600 유로 정도로 거래를 마감하고 있다. 운송 비용을 감안하면 CFR 기준 10월 2,800 유로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은 아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6일자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수요 둔화로 하락세

아비장, 세이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

12월 운송분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연말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했다.

인도양에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의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지난달 “10kg 이상 황다랑어 가격 하락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완제품의 수요가 느려졌기 때문으로 이는 11~12월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이러

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대형 참치캔 가공업체에 근무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운송분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800 유로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비장, 코트디부아르, 세이셀에서의 가격은 톤당 약 2,650 유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일자



ICCAT, IUU 지원 기업 조치 합의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전략 채택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원국들은 11월 14~21일 개최된 제23차 특별회의에서 불법 조업 지원 기업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자연보호단체 Oceana에 따르면, 새 규정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선에 보험, 위성통신, 금융 등을 비롯한 서비스의 제공을 제지할 예정이다.

EU가 제안하고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치는 불법 조업에 직접 가담한 개인 또는 기업만을 기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기존 규정을 대체한 것이다.

한편, 퓨(Pew) 자선재단은 ICCAT이 현대화된 대서양 참다랑어 어업관리계획을 채택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ICCAT은 관리자들이 매년 참다랑어가 얼마나 어획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과학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관리 절차를 채택했다.

퓨 자선재단에 따르면 '어획 전략(harvest strategy)'으로도 알려진 이번 관리 절차 도입을 통해 ICCAT는 단기적 필요에 따른 수동적 결정에서 장기적 지속가능한 어업 확보를 위해 고안된 사전예방적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퓨 자선재단은 어획전략 채택을 통해 ICCAT가 대서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협상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대서양 및 한때 심하게 고갈되었던 동

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 개체군의 회복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CCAT은 또한 최초로 매우 취약한 종인 청상아리(shortfin mako shark)의 개체수 쿼터에 합의했다. ICCAT은 2019년 과학자들이 권고한 수준 내에서 양륙 및 폐기로 인한 사망률을 만회하기 위해 남대서양 어획 한도를 설정하고 개별 어업 주체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상아리의 양륙을 40~60%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눈다랑어 TAC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6만 2,000톤이 유지되었다. 황다랑어 TAC도 11만톤으로 유지되었다. 선박당 300개의 FAD 제한, 72일 FAD 금지, FAD 설계에서 비어힘 재료 사용 요구를 포함한 FAD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제채낚기재단(The International Pole & Line Foundation)은 "선단이 제출해야 하는 FAD 데이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시가 주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중해 날개다랑어 자원에 대한 15년 재건 계획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중해 날개다랑어 TAC는 2022년 2,500톤으로 설정되었다. 2022~2023년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개체군의 TAC는 3만 7,801톤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1일자, Atuna, 2022년 11월 23일자



ICCAT 자원 상태 보고서

가다랑어·눈다랑어 건강, 황다랑어 개선 중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3차 특별회의가 11월 14일 포르투갈에서 시작됐다. 연구통계 상임위원회(SCRS)는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자원 상태와 가다랑어 자원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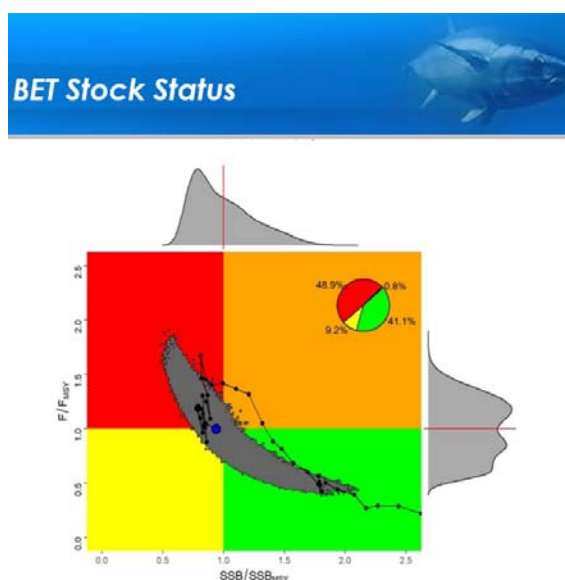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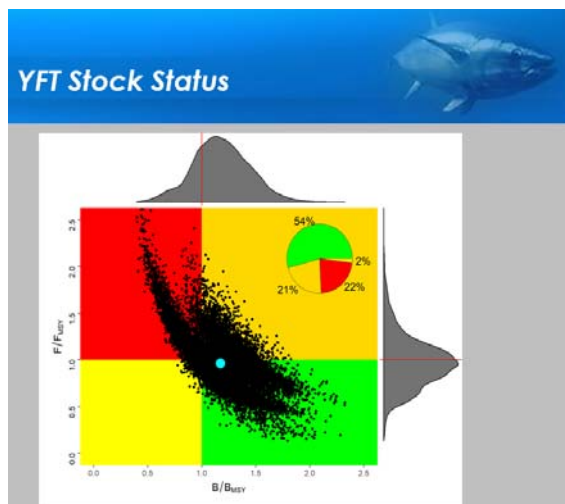
2021년 대서양 황다랑어 어획량은 10만 9,895톤으로 TAC 11만톤(2012년 설정)에 조금 못 미쳤다. 2014~2020년 어획량은 TAC를 초과했었다. 황다랑어 자원은 현재 남획되지 않았으며 남획이 발생하지 않았다. SCRS는 12만톤 이상의 어획량은 황다랑어 자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SCRS는 지난 몇 년 동안 초과 어획이 빈번하고 심각했으며 기존의 보존관리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눈다랑어 어획량은 4만 5,959톤으로 TAC 6만 1,500톤 이하였다. 2017년 이후 자원 상태가 개선되었지만 남획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며, 2019년 이후 남획이 발생하지 않았다. SCRS는 2034년까지 녹색(지속가능한 수준)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TAC 유지를 권고했다.

또한, 어획량 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생산량과 자원 상태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황다랑어 치어와 눈다랑어의 어획 사망률 감축을 권고했다. SCRS는 선망선 가다랑어 FAD 조업이 황다랑어 치어와 눈다랑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가다랑어 자원은 서대서양, 동대서양 모두에서 지속가능한 상태이고 남획되지 않았으며 남획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됐다. 2021년 가다랑어 어획량은 21만 6,139톤으로 서대서양 1만 9,510톤, 동대서양 19만 6,987톤이다. SCRS는 최대지속생산량(MSY) 서태평양 3만 5,277톤, 동태평양 21만 6,617톤이 지켜진

다면 2028년까지 녹색을 유지할 확률이 각각 70%, 55%라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16일자



관리 조치가 참치 자원 개선에 미친 영향

2000년대 관리조치 시행 이후 참치, 새치류 자원 회복

처음으로 지역수산기구(RFMO)와 자원 보유국이 시행한 조치가 전 세계 참치 자원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페인 연구센터 AZTI는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ISSF)과 공동으로 '해양 포식성 어류에서 70년 동안 기록된 멸종 위험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 결과 상업용 참치와 새치류의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참치 어업에서 일부 부수어획되는 상어와 가오리의 상황은 걱정스러운 수준이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 새치류, 상어류의 멸종 위험은 2000년대 관리조치 시행으로 어업 압력이 감소할 때까지 계속 악화되었다. 관리조치 시행 이후 참치와 새치류 자원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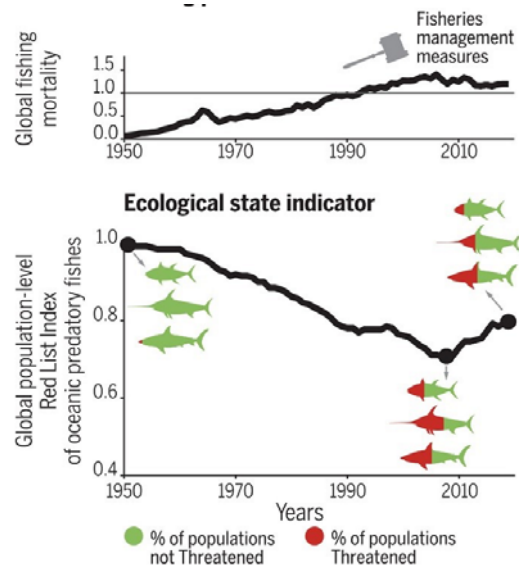
연구자들은 참치와 새치류의 회복으로 생물다양성 손상이 중단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다음 과정은 상어종의 감소를 막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프는 지난 70년 동안 참치, 새치류, 상어 개체군에 대한 어획사망률(압력 지표)의 전 세계 개체 수준 RLI(적색목록지수) 변화를 추적한 연구 결론을 보여준다. 참치 지역수산기구가 어업관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획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2008년에 RLI가 역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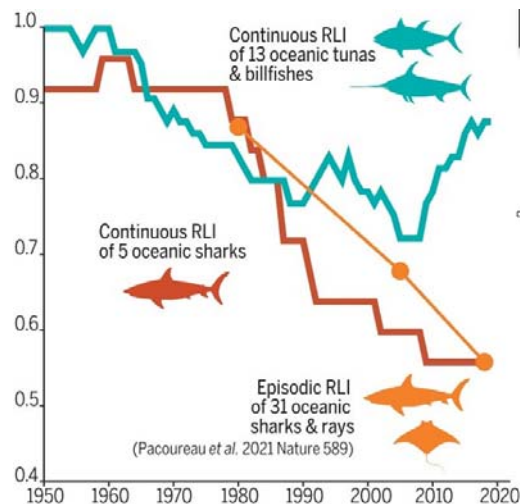
A 그래프에서 회색 수평선은 F(최대지속생산량)/FSY(어획사망률)=1을 나타낸다. B 그래프는 70년 동안 멸종 위험의 연간 변화를 추적하는 참치, 새치류, 상어의 글로벌 연속적인 종 수준 RLI 및 1980년과 2005년, 2018년에 추정된 상어, 가오리의 글로벌 일시적인 RLI를 나타낸다. RLI 값이 1이면 주어진 분류군이 가장 관심이 적은(곧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분류군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반면, RLI 값이 0이면 모

든 분류군이 멸종되었음을 나타낸다.

(A)



(B)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6일자



EU 참치캔 가공업체, 로인으로 수입 전환 가속화

원어 수입 감소, 인도양·대서양 선단에 부담

유럽수산물시장관측소(Eumof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참치캔 가공업체들은 2021년에도 냉동 참치 원어 구매를 줄이고 이를 자숙 냉동참치 로인으로 대체했다. 2021년 로인 수입량은 17만 6,007톤으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2021년 원어 수입량은 18만 5,875톤으로 13%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 가속화 됐다. EU 공식 통계 기관인 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로인 수입량은 7만 3,989톤,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4,825 유로였다. 반면, 원어 수입량은 2만 8,143톤 평균가격은 톤당 2,389 유로였다. 두 제품 모두 수입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EU 가공업체들은 2016년부터 저임금 국가(특히 에콰도르, 아시아)에서 전가공 처리된 제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이는 캔가공 업체들에게 상당한 비용상 이점을 제공하지만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EU 선단

에는 부담이 된다. 자율할당관세(ATQ) 증가에 대한 EU 선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럽 이사회(EC)는 2020년에 자율할당관세 물량을 3년 간 연간 3만 5,000톤으로 결정했다. 자율할당관세를 적용 받아 EU에 수입되는 자숙로인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특히, 스페인 사람들은 수입되는 자숙로인이 IUU 어업 및 노동 착취와 연관된 선박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선단은 어획물을 세이셸,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의 가공 시설로 보내고 잉여분을 방콕으로 보내고 있다. 대서양 조업 선단의 경우 어획물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가공업체는 에콰도르·중국과 참치로인 가격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참치캔 가공에 집중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8일자

EU 참치 및 수산물 가격 급등

올해에만 10.67% 상승

올해 10월까지 EU 식품 가격은 2015년 대비 32% 가까이, 올해에만 16.4% 상승했다. 한편, 수산물 가격은 2015년 대비 30%, 올해에만 10.67% 상승했다.

유럽에서 참치 소비량이 많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의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2015년 대비 각각 28%, 23%, 32% 증가했다. 스페인 수산물 가격은 올해 10개월 동안 5.64% 상승했다.

EU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참치캔 수입에 대한 톤당 평균비용은 5,152 유로로 크게 상승했다. 2016년(4,080 유로) 이후 가격이 상승했으나 2019~2021년(4,505~4,254 유로)에는 코로나, 전쟁 등으로 하락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5일



英, 상어·가오리 혼획 방지기술 개발

전기펄스 방출해 어망 피하게 만들어

영국에서 상어 혼획을 90%까지 줄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는 영국 엑서터대학과 해양공학회사 피쉬테크(FishTek)가 짧은 전기펄스를 방출해 상어·가오리 혼획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설계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샤크가드(SharkGuard)로 알려진 이 소형배터리 구동장치는 실험결과 지중해의 프랑스 참치연승 어선에서 혼획된 청상어 수를 91%, 가오리 수를 71%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줄에 고정된 샤크가드는 2초마다 짧은 펄스를 방출한다. 이 펄스가 상어의 코와 입 주변 로렌치니 기관이라 불리는 전기센서를 일시적으로 자극해 상어가 어망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저자인 필 도허티(Phil Doherty) 엑서터대학 해양보존과학 박사는 샤크가드가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어 청상어와 원양가오리의 어획을 줄인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다른 어업에서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추가 해상시험이 필요하며 사례별로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추가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상어들을 막을 수 있는 펄스 임계값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크가드를 설계한 피쉬테크(FishTek)의 공동설립자이자 이사인 피트 키벨(Pete Kibel)은 이 장치가 2024년까지 상용화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장비를 소형화해 어부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며 "멸종위기에 처한 원양상어종의 남획을 70%에서 95%까지 감소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키벨 이사는 최근 실험에서 참치어획량이 명목상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샤크가드의 무게가 낚시바늘의 깊이를 바꾸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배터리가 없는 더 가벼운 유도충전방식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혼획방지기술에 관해 알리 후드(Ali Hood) 영국 자선단체 샤크트러스트(Shark Trust) 보존책임자는 상어를 어획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의 일부일 뿐이라며 "상어와 가오리의 포획 제한 및 금지가 개체수를 회복할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커런트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학술지에 게재됐다.



* 기사 출처: 뉴스 트리, 2022년 11월 22일자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식 채택

2024년부터 발효...참치 공급망 녹색기준 강화 전망

지난 11월 10일 유럽연합 위원회(EC)는 EU의 모든 대기업이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침인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정식 채택했다. EU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보유한 비(非) EU 기업도 새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참치 부문의 경우, 참치캔 가공업자, 선단, 주요 유통업자 등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정밀조사를 받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은 2024~2028년 동안 적용된다.

CSRD는 주식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직원 250명 이상 및·또는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및·또는 총 자산 2,000만 유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026년에 활동 영향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에서 일정 이상의 활동을 하는 비 EU 기업, 즉 EU에서 창출한 매출액이 1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도 이에 따라야 한다.

참치 공급망에 걸쳐 수많은 대기업이 있으며, 그 중

어업, 가공, 유통을 하는 Jelsa나 Calvo 그룹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미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행한다. Aldi와 Lidl과 같은 할인 체인 대기업과 Albert Heijn, EDEKA, Carrefour와 같은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도 특히 수산물 소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구매 정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조직들이 독립적인 감사와 인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치 공급망에 걸쳐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된 중소기업들도 2026년 1월 1일부터 CSRD의 적용을 받으며, 2027년 활동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올해 11월 28일 해당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침은 EU 공식 저널에 정보가 게재되고 20일 후에 발효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11일자

타이유니온, 인도양 연승선 선원 복지 해상평가

컨설턴트가 34일 동안 운반선에 승선해 19척 평가

타이유니온은 MRAG와의 협력하에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선에 컨설턴트를 34일간 배치해 연승선 19척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 연승선은 말레이시아와 대만 국적 연승선이다. 이러한 평가는 위성, 전자모니터링, 항구 내 검사, 선원 노동 및 복지 프로그램(FWW)을 포함한 기존 수단을 보완한다.

평가 결과는 FWW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이다. 타이유니온은 조사 결과를 어업 분야의 개발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길 기대한다. 타이유니온은 추가적으로 해상 평가를 수행하고 조업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23일자



중국 Ocean Family, MSC 3대양 인증 목표

연승선 19척 평가 점수 합격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Global Services는 Chinese Zhejiang Ocean Family사의 태평양 및 인도양 연승 참치 및 새치 어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 단위(UoA)는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인도양으로 나뉘지며 총 9개이다.

평가기관은 모든 평가 단위가 MSC 표준 3가지 원칙 모두에 대해 8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보고했다.

중서부태평양 MSC 인증 운영을 위해 2023년 6월 23일까지 참치 어획전략 관련 3가지 조건이 주어졌다. 또한, 각각의 참치에 대해서는 가입량 손상점(Point of Recruitment Impairment)에 접근함에 따라 어획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기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2023년 6월 23일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 어업은 상어지느러미 채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동부태평양, 인도양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부태평양과 인도양의 경우 인증이 만료될 때까지 어획전략과 어획통제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증 대상 선박은 중서부태평양 및 동부태평양 중국 국적 연승선 11척, 인도양 연승선 8척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14일자

中 기업 산하 스페인 참치캔 공장 가동

약 3,100만 달러 투자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중국 원양기업 Shanghai Kaichuang사(社) 산하의 스페인 기업 Hijos De Carlos Albo사(社)가 스페인 북부 통조림 공장의 확장 공사를 완료하여 가동을 개시했다.

Kaichuang사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스페인 Salvatierra의 Plisan에 위치했으며, 약 3,1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시작되었다. Kaichuang사는 해당 공장에서 참치, 정어리, 오징어, 홍합 등의 통조림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bo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스페인 Vigo와

Cillero의 공장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생산 물량은 새 공장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Albo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12.9% 감소한 8,640만 유로이며, 당기순이익은 16.6% 감소한 268만 유로였다.

Kaichuang사는 2022년 1~3분기 Albo사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Albo사가 여전히 스페인 3위 규모의 참치캔 업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30일자



포클랜드 Orion사, 트롤선 신조 계약 체결

길이 약 85m...2025년 조업 개시 계획

스페인 Vigo의 벤처기업 Armadora Pereira와 포클랜드 기업 Argos 그룹의 합작 어업회사인 Orion사가 스페인 Nodosa 조선소와 트롤선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

신조선은 포클랜드 어업 구역에서 오징어와 기타 어종을 어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길이는 85m로, 이 기업이 Nodosa에 주문한 최대 규모의 선박이 될 예정이다. 신조선의 설계는 높은 생활 수준 및 작업 조건에 대한 선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며, 바다새 사고 방지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의 환경적 요인도 높은 우선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조선은 주요 냉매로 암모니아를 사용한다.

선체 설계는 기존 선박에 비해 인버티드 보우(inverted-bow, 흡수선 길이를 최대화하여 선체 속도

를 높이고 유체역학적 항력을 향상시킨 선박 설계 방식) 개념을 한층 강화했다.

Nodosa 조선소는 신조선을 2024년 하반기 Orion사에 인도할 계획이며, 2025년 초 어업시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1월 19일자

페루 대왕오징어·만새기 어업자 협회 결성

자원 지속가능성·어업관리 증진 등 목표

페루 대왕오징어·만새기(mahi mahi) 어업자들이 Sonapescal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영세 어선 약 1,300척을 대표한다. 대왕오징어·만새기 어업은 페루에서 약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Sonapescal의 목표는 대왕오징어·만새기 어업 어

선의 어업 관리·자원 지속가능성·정제화 등을 위한 집단적 해결책 및 정책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지속가능경영위원회(Calamasur)의 Alfonso Miranda 위원장도 해당 협회의 창설식에 참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2일자



러시아, 새로운 조업구역에서 추가 어획 계획

15만톤 추가, 서베링해 명태 쿼터 76만 2,000톤에 달할 수 있어

러시아 수산청은 지난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극 동 과학 어업 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베링해 새로운 조업 구역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조업구역에서의 조업으로 러시아 어업인들은 미국에서 러시아 수역으로 이동하는 명태를 추가로 15만톤 어획할 수 있다. 또한 청어와 대구도 추가로 어획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15만톤의 명태 쿼터는 서베링해 명태 TAC에 추가되는 양이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른바 ‘트라이앵글’이라는 조업구역(subzone)으로 미국 수역과 접경한 러시아 EEZ에 위치해 있으며, 동 수역에서의 조업은 올림픽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모든 어업 회사가 조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15만톤이 어획되면 어장이 폐쇄된다.

그러나, 수산청은 미국 수역에서 러시아 EEZ로 유입

되는 명태 생물량이 상당하다면 러시아 어업인들이 15만톤 이상을 어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2023년 조업시즌 서베링해 명태 쿼터는 지난해 대비 49.3% 증가한 61만 2,000톤으로 설정되었다. 수산청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면 내년 러시아 서베링해 명태 쿼터가 76만 2,000톤에 달할 수 있다.

다만, 트라이앵글 조업구역에서의 조업 개시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서베링해 내 조업구역 내 새로운 조업구역을 만들어야 함으로 수산청이 쿼터를 보유한 회사와의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17일까지 서베링해에서의 명태 어획량은 45만 2,100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러시아 전체로 보면 13.6% 증가한 176만톤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1월 25일자

러시아, 올해 명태 연육 생산 3~4배로 증가

현재까지 약 2만 4,000톤

올해 러시아 어업의 고차 가공화 전략에 따라, 게맛살의 원료가 되는 명태 냉동 연육(すり身)의 생산량이 2021년 대비 3~4배의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 11월 중순 시점 러시아의 명태 냉동 연육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 6,000톤 대비 약 4배인 2만 4,000톤을 기록했다.

올해 최종 생산량은 2만 8,000톤으로 전망된다. 2021년 최종 명태 냉동 연육 생산량은 약 8,000톤이었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11월 26일자



美 베링해 명태 ABC안 52% 증가

2023년 TAC 대폭 증가 전망

미국의 주요 수역인 베링해의 2023년 명태 TAC는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 저서어류계획팀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안은 2022년 ABC 대비 52% 증가한 168만 8,000톤이다. TAC는 ABC 이하로 설정되며, 2022년 TAC는 ABC와 동일했다.

그 외 수역 ABC안의 경우, 알류산열도 수역은 14%

감소한 4만 3,413톤, 알래스카만(사우스이스트 제외)은 12% 증가한 14만 8,937톤이다.

2024년 ABC안도 함께 공표되었다. 베링해의 2024년 ABC안은 181만 5,000톤(2023년 ABC안 대비 8% 증가), 알류산열도 4만 3,092톤(1% 감소), 알래스카만 16만 1,080톤(8% 증가)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1월 16일자

러시아, 명태 등 자원이용세 인상

명태 톤당 4,300 루블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농림부는 11월 21일자로 수산생물자원 이용세를 인상하는 연방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1개월 후가 된다.

연방세법 제2조 25·1항 개정으로,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수산생물자원 이용세가 대폭 인상된다. 동시에 자국 조선소에서 어선을 개조한 자(투자 쿼터 이용자 제외), 자국 육상 가공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연안 어업자, 고차 가공제품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공제가 설정되었고, 일정 기간 소규모 지자체나 취약 형성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세율 동결 등의 조건이 포함되었다.

주요 어종의 이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엔화 가격은 우크라이나 정세 이전 환율로 환산됨).

△오호츠크해 명태: 톤당 3,500 루블에서 4,300 루블(kg당 약 6.45 엔), △기타 수역 명태: 톤당 2,000 루블에서 4,300 루블(kg당 약 6.45 엔), △가자미류: 톤당 1,000 루블에서 2,100 루블(kg당 약 3.15 엔), △넙치류(검정가자미 포함): 톤당 3,500 루블에서 1만 2,700 루블(kg당 약 18.9 엔), △홍연어=톤당 2만 루블에서 3만 루블(kg당 약 45 엔), △홍연어=톤당 2만 루블에서 3만 루블(kg당 약 45 엔), △왕게=톤당 3만 5,000 루블에서 8만 루블(kg당 약 120 엔)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1월 29일자



러시아, 제2차 투자쿼터 프로그램 승인 눈앞

법안 놓고 대기업-중소기업 의견 엇갈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Duma)이 제2차 투자 쿼터 프로그램 초안을 승인했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통해 105척의 어선 건조 및 21개의 가공 공장 신설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다. 가공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이다. 그러나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 9월까지 계획된 어선 중 10척만이 기업에 인도되었고, 9척은 2022년 말까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쿼터 프로그램 하에 2023년까지 45척의 선박이 완성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 목표는 현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조선소는 해외 조선소에 비해 수요를 충족시킬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기업들이 러시아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하게 만들면서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21년 러시아 수산청은 제2차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해당 안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 명태·청어의 TAC 20%가 포함된다. 더불어 계를 비롯한 다른 고가 종에 대한 쿼터도 결국 투자 의무와 함께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경매에서 약 2,000억 루블(32억 2,0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낙찰 업체들은 3,000억 루블(48억 3,000만 달러)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수산청의 투자 쿼터 확대를 향한 움직임에 러시아 수산업계는 반발과 지지가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대 움직임은 러시아의 중소 수산기업이 경매에 참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안 타파를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이끈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가 주도하고 있다. VARPE 측은 새 투자 쿼터제가

실시되면 쿼터를 상실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고, 특히 게 어업회사 93개사 중 36개사가 폐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영 컨설팅 기업인 Vostokgosplan는 청어, 명태를 주 어종으로 삼는 117개의 중소 어업회사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쿼터를 상실해 약 4만 명의 러시아 극동 지역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VARPE의 German Zverev 회장은 러시아가 선단 최신화를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Zverev 회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1,000여 척의 어선 중 극동 지역의 어선 764척의 평균 선령이 29년, 북부 지역 어선 172척의 평균 선령이 27년으로, 타 주요 어업 국가의 평균 선령과 큰 차이가 없다.

새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찬성하는 측은 노레보(Norebo), RFC 등 28개 수산 대기업으로 구성된 러시아어선선주협회(FSA)이다. FSA 측은 러시아의 수산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 3배, 순이익 2배, 투자액 4배를 기록했으며 타 산업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경매에 참가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FSA 측은 또한 쿼터 경매 낙찰자들이 조업하는 지역별로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입 및 세수 혜택,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점이 있고, 러시아 현행 어업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산하의 사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 어업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SA는 또한 이 법의 시행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많은 적응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1월 10일자



러시아 연구소, 오호츠크해 명태 자원 긍정적 전망

2021년급군 풍부해...2024년 TAC에 영향

러시아 해양어업연구소 VNIRO는 러시아와 일본 EEZ 경계왕래성 자원인 오호츠크해 명태 자원의 2021년급군(2021년 출생군) 풍도(풍부함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VNIRO는 학술평의회를 개최해 오호츠크해 명태의 자원예측에 관해 논의했다. 평의회에서는 조사항해 결과와 자원의 생산효율에 관한 정보 등이 보고되었고, 2021년급군의 풍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호츠크해 명태자원은 2017~2020년 동안 풍도가 높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자원의 TAC 설정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5%가 감축되는 안전 대책이 취해졌다.

2021년급군 자원에 대한 보고 등 이번 평의회 결과는 2024년 TAC 설정의 기반이 된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11월 29일자



VARPE, 어선단 개조 연간 보조금 15억 루블 요구

현재 보조금 제도는 인기 없어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는 국가 어선단 개조(리뉴얼) 지원을 위한 연간 보조금으로 15억 루블(2,480만 달러)을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러시아의 보조금 제도가 수산업에

서 인기가 없다며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24일자



중국 명태 부문, 올해 이익 증가

공장 가동률 하락했지만 가격 상승

중국 최대 명태 가공회사이자 최대 냉수성 새우 수입회사인 China Starfish의 Zhang Zhigang 대표는 중국의 명태 가공 산업이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올해 더 나은 수익성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재료 공급이 부족했고 가공공장이 충분히 가동되지 않았지만 방역 정책 변화로 10월, 11월에 원재료 수급 상황이 개선되었다”며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더블프로즌(double-frozen, 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가공된 후 2차 냉동된 제품)블록 제품의 재고가 바닥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했다.

Zhang은 “더블프로즌 펠렛 가격이 톤당

3,000~4,000 달러, 싱글프로즌 가격이 4,000~5,000 달러까지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Zhang은 지정학적 요인이 중국 가공회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제품을 선호하게 한다고 말했다.

Zhang은 중국의 명태 가공산업이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유럽과 미국 고객들이 자체 공급망의 안전을 위해 팡가시우스와 같은 대체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완전한 교체는 비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23일자

러시아, 중국 수산물 수출 51% 증가

11월 1일 기준 43만톤

러시아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2022년 중국행 수산물 수출량 누계는 11월 1일 기준 총 43만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러시아의 중국산 수산물 수입량은 3만 9,400톤, 수입액은 2억 2,100만 달러이나 지난해 대비 증감률은 발표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1월 8일자



日, 태평양동해 명태 TAC안 제시

동해 북부 1만 5,300톤, 태평양 17만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2023 관리연도(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 명태 TAC 설정에 관한 의견교환회가 지난 12월 2일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일본 수산청으로부터 4계군의 TAC안이 제시되었다. 태평양계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17만톤이며, 동해 북부 계군은 전년도의 약 2배인 1만 5,300톤으로 설정될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내년 2월 상순 개최 예정인 일본 수산 정책심의회 자원관리분과회의 자문안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태평양계군은 2016년, 2017년급군(특정 년도에

출생한 군)의 자원 상태가 양호해, 2021년 어기의 친어량(산란능력이 있는 개체의 양)이 목표관리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42만 5,000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24년 어획량은 19만톤까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동해 북부 계군의 TAC는 한동안 1만톤 미만인 상황이 계속되었으나, 2023년도 TAC안은 2022년도 초기 TAC안인 7,500톤(변경 후 7,890톤)의 2배 이상인 1만 5,300톤으로 단숨에 급증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2월 2일자



노레보, 조선사 Pella 인수

어선, 쇄빙선, 군함 등 다양한 선박 건조

러시아 조선업체가 어선 신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업 그룹 노레보(Norebo)가 조선사 Pella의 인수 계약을 마무리지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본사를 둔 Pella는 레닌그라드 지역에 2개의 주요 조선소를 보유한

조선 그룹으로, 대주주는 주식 지분 72%를 보유한 Herbert Tsaturov이다. Pella는 어선, 쇄빙선, 군함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1월 18일자



日 공치 11월 어획량 누계 1만 7,869톤

최저 수준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 12월 6일 발표한 11월 말 시점 공치 누계 어획량은 1만 7,869톤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전년 동기 1만 7,899톤과 유사하다.

홋카이도에 양륙된 양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만 794톤, 혼슈(本州, 일본 열도에서 가장 큰 섬)에 양륙된 양은 17% 증가한 7,075톤이었다.

전국 평균 단가는 8% 하락한 10kg당 5,766 엔이었다. 양륙 금액은 103억 273만 엔(8% 감소)로 드디어 100억 엔대를 기록했다.

계속해서 공해에 어장이 형성되었던 지난 어기에 비해, 올해는 산발적으로 일본 근해에 어장이 형성

될 때가 있었다. 그러나 빈발하는 기후 문제로 인해 어획이 지속되지 않았다. 일본 근해 해수온도가 평년 대비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11월 한 달 어획량은 6,851톤으로, 전년 11월 대비 19% 감소했다.

12월에 접어든 이후의 어획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인 전년도 어획량을 넘어서려면 422톤을 더 어획해야 하나, 5일까지의 어획량은 전국 15톤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올해 역대 최저 어획량이 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미나토신문,
2022년 12월 8일자

러시아, 2023년 공치 등 어획 권고량 발표

남쿠릴 공치 약 9만톤

러시아 수산청이 2023년 비(非) TAC종 공치·고등어·정어리(일본 EEZ 경계왕래성 자원)의 러시아 EEZ 어획 권고량을 발표했다.

남쿠릴 북쿠릴 합계 기준 공치는 278.3% 증가한 10만 968톤, 정어리는 4.3% 증가한 49만 9,917톤, 고등어는 8.4% 증가한 25만 9,934톤이다.

	년도	북쿠릴	남쿠릴	남·북쿠릴 합계
공치	2021	10,994	43,994	54,988
	2022	10,994	15,696	26,690
	2023	10,994	89,974	100,968
	전년 대비	-	473.2%	278.3%

* 기사 출처: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12월 5일자



Friend of the Sea, 친환경 라벨 꾸준히 확장 중 지속가능 관련 다양한 분야 인증 제공

Friend of the Sea(이하 FOS)는 지속가능 어업 및 선단, 양식업, 오메가3 어유 및 UV 크림, 지속가능한 관광 등에 대한 인증을 제공한다. 이들은 또한 상어나 거북 보호 등에 대한 인증 로고도 제공한다.

FOS 로고는 이탈리아의 참치캔과 수산 제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Asdomar는 FOS 인증 로고를 부착한 이탈리아의 주요 참치캔 브랜드 중 하나이다. 한편 이탈리아 참치캔 1위 기업인 Rio Mare는 MSC 인증을 받았다.

MSC는 MSC 로고 제품 판매량에서 일정 비율(0.3~0.5%)을 사용료로 부과한다. FOS의 경우, 산업용 선박 선주는 첫 번째 아이템에서 선박 1척당 2,000 유로를 사용료로 지불해야 하나, 4척 이상의 선박으로 어업을 하면 1척당 1,600 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FOS 인증과 MSC 인증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두 기관이 자원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UN식량농업기구(FAO)가 특정 자원이 남획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FOS는 이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MSC는 이들의 자체적인 어업 표준 및 지표를 사용한다.

FOS의 로고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FAO,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국가 어업당국에서 남획 어종으로 간주하지 않는 자원, △해저에 대한 심각한 영향 없음, △선별적 어구(폐기물 최대 8%),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 이상의 자원이 혼획되지 않아야 함, △법적 요구사항 준수(TAC, IUU 금지, 그물 크기 제한, 최소 어체 크기 등), △폐기물 및 에너지 관리, △사회적 책임, △참치 어업의 경우 반드시 얽힘 없는 FAD 인증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1월 9일자

수산물 해운 보험료, 대폭 인상 추세 끝나 급등 추세 끝났으나 이전 이상의 하락은 어려움

지난 6개월간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등했던 수준에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나, 해상 보험료의 경우 수직낙하 수준의 급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수산물 해운 보험료는 팬데믹 이전 대비 20~40% 인상된 '뉴 노멀' 수준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국제보험중개사 Foa & Son의 보험 전

문가 Michael Lieberman은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보험료가 10%씩 인상되던 시기는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박 및 보험 관련 비용을 감안하면 이전보다도 더 낮은 보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1월 14일자



러시아 수산 기업, 견습인턴십 프로그램 투자 증대 숙련노동자 부족 대응 목적

러시아 수산 기업들이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견습인턴십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 수산업계는 수년간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상은 갑판장부터 선장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일손 부족의 원인이 낮은 급여 때문임은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수산업에 약 12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9년과 2020년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산업군 중 하나로 파악되었다.

전러시아어업협회(VARPE)는 러시아 농림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어업 회사들이 선박 항해, 엔지니어링, 전기 장비 운영, 냉동 및 식품 설비 관리, 트롤 어구 관리 등의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극동수산기술대학의 Oleg Stcheka 소장에 따르면 졸업생들이 어업 회사로부터 받는 제안은 평균적으로 4~5건이다. 그러나 러시아 어선선주협회(FSA)에 따르면, 어업 관련 학교 졸업생 중 실제로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의 비중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수산업계는 캠페인 등을 통해 러시아 청년층의 인식 개선에 나섰다. 러시아 수산 대기업들은 현재 대부분 주요 SNS 계정을 보유 중이며, 이를 통해 구인 내용을 게시하고 업무 환경을 알리고 있다. 러시아어업회사(RFC)는 최근 신조 수퍼트롤선의 기존 어선 대비 작업환경 개선 등을 SNS로 홍보한 바 있다.

러시아 국영기업 Antey 산하의 한 어업 그룹은 무

르만스크 수산대학에 투자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협의 중이다. 해당 기업은 더 많은 인력 공급을 목표로 어업에 필요한 학생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발전 기금에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Antey는 또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국립해양대(MSU)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투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취업 및 인턴십 기회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다.

러시아 수산 대기업 RFC 또한 MSU에 집중하고 있다. Olga Naumova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업계가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러시아 어업 회사들은 더 어린 연령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Russian Crab사(社)는 MSU와 협력하여 연해주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 행사를 추진했다. 해당 기업은 또한 MSU에서 더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 커리어 데이를 진행하고, 극동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한 광범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러시아 최대 어업 그룹 노레보(Norebo)는 본사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 일반 중등학교보다 더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갖춘 영재 학교 건설을 후원해왔다. 노레보 측은 러시아 교육편제(11학년) 중 5학년인 학생들에게 수산 관련 무역 분야를 소개하고, 10학년 학생들은 어업 및 어업가공 관련 전공을 소개하는 '해양학급(marine classes)'의 창설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s, 2022년 12월 5일자



日 연구기관 “어육 단백질, 체내 흡수 쉬워”

대두·닭고기 단백질 대비 체내 흡수 용이

일본의 선도적인 어육 제조업체 스즈히로 어묵 본점(鈴廣蒲鉾本店)의 연구기관인 ‘어육단백연구소’는 지난 11월 24일,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인 DIAAS(소화성 필수 아미노산 점수)를 통해 대두·닭고기 단백질 대비 어육 단백질의 우위에 대해 설명했다.

본래 식품 간 단백질의 질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아미노산 점수’라는,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종류의 균형 있는 함유 정도를 나타낸 점수가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2013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창한 DIAAS가 새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DIAAS는 필수 아미노산의 소화흡수율을 가미한 지표로, 상한값(100)의 존재로 인해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이 만점으로 평가되어 변별력이 떨어진 아미노산 점수와 달리 보다 정확하게 단백질의 영양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점수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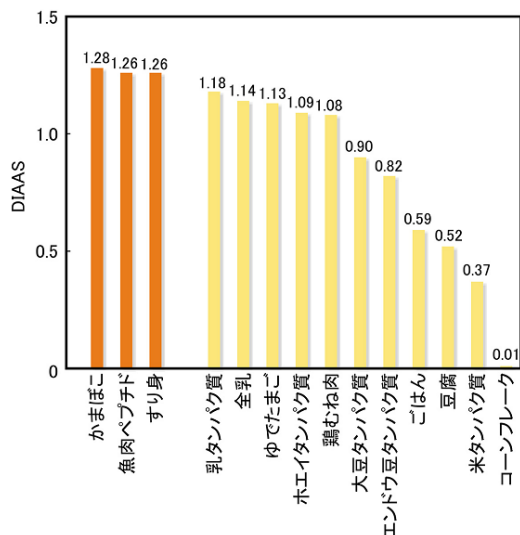
2013년 FAO에서 발표한 논문인(Dietary protein quality evaluation in human nutrition)의 연구에 따르면 어묵(かまぼこ)의 DIAAS는 1.28, 어육 펩타이드(魚肉ペプチド)와 연육(すり身)은 1.26으로 조사 대상 중 최상위를 차지했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유단백질 1.18, 삶은 계란 1.13, 유청단백질 1.09, 닭가슴살 1.08, 대두단백질 0.90, 두부 0.52 등을 기록했다.

어육단백연구소장 우에키 노부히코(植木暢彦) 박사가 발표한 논문인 <사가미만산 어류의 수용성 근육 단백질의 혈압상승 억제 작용(相模湾産魚類の水溶性筋肉タンパク質の血圧上昇抑制作用)>에 따르면, 어류 단백질은 콩이나 유청 단백질에 비해 소화가 쉽고 단시간에 저분자화된다.

우에키 박사가 발표한 또다른 논문인 <어육 단백질

과 어육 펩타이드로 스포츠에 적합한 몸으로(魚肉タンパク質と魚肉ペプチドでスポーツに適した体に)>에 따르면, 어묵 등 수산물 반죽 제품은 축산육이나 계란 흰자 등에 비해 인공 위액 속에서 신속하게 분해되어 소화성이 높다.

또한 <어류 소비와 사망유발원인·원인별 사망률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fish consumption and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tality in Japan>, <어류 및 n3 지방산 섭취와 일본인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성(Intake of fish and n3 fatty acids an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Japanese)>, <어류·육류 및 치매 위험성(Fish, meat, and risk of dementia)> 등의 논문에 따르면, 어류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장수하기 쉽고, 심장병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1월 28일자
어육단백연구소, 2022년 11월 14일자



새 FDA 규정, 美 수산물 공급 이력추적 요건 강화 추적가능성 기록 보존 요건 강화·FDA 권한 강화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규 규정을 통해 수산물 및 타 신선 식품 공급업자에 대한 이력추적(traceability) 기록 보존 요구 조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미국과 그 외 국가에서 조달된 모든 식품 공급 과정에서 오염된 식품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추가 기록 보존 요건은 히스타민을 발생시키는 모든 어류, 잠재적으로 시구아톡신(특정 어류에서 발견되는 독성 화합물질)에 오염된 모든 어류, 그 외 모든 어류가 함유된 특정 음식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과정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모든 훈제 어류, 연체류, 갑각류에도 적용된다.

연체갑각류는 신선·냉동 상태의 냉동 굴, 조개, 홍합, 가리비 또는 해당 종의 식용 부분을 의미한다. 단, 제품이 완전히 내전근(adductor muscle)에 둘러싸인 경우는 제외된다.

식품 추적 목록에 포함될 식품을 결정하기 위해, FDA는 2011년 미국 의회가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서 발견한 요인을 바탕으로 식품 추적을 위한 위험순위모델(risk-ranking model)을 개발했다.

메기에 관한 데이터는 메기목(siluriformes) 어류가 주로 미국 농무부에서 규제되기 때문에 위험순위모델에서 제외되었다고 FDA는 밝혔다.

최종 규정의 주요 특징은 식품의 수확, 냉각, 초기 포장, 수령, 변형, 배송과 같은 공급망의 특정 지점

에서 중요한 사건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에 새 식품안전 관련 요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FDA의 권한을 확장하는 것이다.

FDA는 또한 이력추적 계획 또는 규제기관이 기업의 이력추적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필수 기록 유지에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식품 이력추적 목록에서 식품 식별에 사용되는 절차에 대한 설명, 이력추적 품목 코드가 할당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추적가능성 계획에 관해 질문 가능한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FDA가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사항에는 원본·전자 기록·실사본 등의 기록 유지, 요청 후 24시간 내 FDA에 요청 기록 제공, 리콜 또는 기타 공중보건 관련 위협 상황 시 FDA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분류가 가능한 스프레드시트로 기록 제공 등의 사항이 있다.

미국 식품무역산업협회(FMI)는 해당 규정을 비판했다. FMI는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전 식품산업에 걸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규정이 의회가 의도하고 작성한 법적 권한을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FMI는 또한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과 일관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1월 16일자



美 수산물 매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타격

감소 수준은 다소 완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미국의 수산물 매출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10월 매출의 전월 대비 감소폭은 이전 달에 비해 줄어들었다.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상온 보관 수산물 가격은 12.5%, 냉동 수산물 가격은 10.2%, 신선 수산물 가격은 4.2% 상승했다. 신선 패류(shellfish) 가격은 2.7% 감소했다.

210 Analytics의 대표 Anne-Marie Roerink는 “10월 수산물 인플레이션은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며 “신선 패류를 제외한 모든 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으나, 그 상승폭은 2022년 상반기에 비해 훨씬 완만했다.”라고 말했다.

Roerink 대표는 전체 냉동식품 및 음료 인플레이션이 수개월 간 평균 이상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냉동 수산물의 인플레이션이 특이 사례는 아니

라고 말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총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 지난해 10월 대비 7.7% 상승으로, 2022년 초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상승치이다. 10월 식품지수(food index)는 9월 대비 단 0.6%만 상승했다.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신선·냉동 수산물 매출은 난조를 겪었다. 10월 신선·냉동 수산물 매출은 3.4% 감소하여 지난 수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냉동 수산물 매출은 6억 2,700만 달러, 신선 수산물 매출은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상온보관 수산물 매출은 3.9% 증가한 2억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1월 17일자

FDA, 세포배양육 제품 최초 승인

차후 다른 세포배양육 제품 검토 예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수요일 최초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세포배양 육류 제품의 승인을 발표했다.

FDA는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 세포배양 닭을 만들어 탱크에서 고기를 배양하는 세포배양 닭고기 제품인 Upside Foods가 미국 농무부(USDA)의 검사를 통과하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는 현재 식품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FDA는 식품 공급의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FDA 국장 Robert Califf는 말했다.

이번 검토는 Upside사의 제품에만 적용되지만, FDA는 다른 세포배양 동물성 식품 개발 기업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USDA와 FDA는 2019년 양 기관 협정에 근거해 세포배양육을 함께 규제한다. 미국 농무부는 세포배양육 제품의 가공 및 라벨링을 감독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1월 17일자



바다

김 소 월

뛰노는 흰 물결이 일고 또 잰는
붉은 풀이 자라는 바다는 어디

고기 잡이꾼들이 배 위에 앉아
사랑 노래 부르는 바다는 어디

파랗게 종이 물든 남빛 하늘에
저녁놀 스러지는 바다는 어디

곳 없이 떠다니는 늙은 물새가
떼를 지어 쫓나는 바다는 어디

건너서서 저편은 딴 나라이라
가고 싶은 그리운 바다는 어디





1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부진에도 소비자가격 보험세

□ 생산동향(11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대비 76% 감소)

11월 오징어 생산량은 1,972톤으로 전월(8,306톤)보다 76.3% 감소했으며, 작년(2,188톤) 및 평년 동월(4,554톤)에 비해서도 각각 9.9%, 56.7% 적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357톤으로 전월 대비 72.4% 감소했다.

이는 해황이 개선됨에 따라 출어는 전월에 비해 늘었으나 어군 밀도는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역별 위판량의 경우, 삼척수협(229톤), 죽변수협(170톤), 강릉수협(141톤) 등 동해안 지역으로의 위판량이 1,196톤으로 90.0%를 차지하였으며, 부산시 수협(56톤), 통영수협(29톤) 등 남해안 지역으로의 위판량은 125톤으로 9.4%였다.

11월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615톤으로 전월(3,386톤)의 20% 이하였으나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많았다. 오징어 누계 생산량은 9만 4,449톤으로 작년보다 9.9% 적었고 평년 대비 3.1% 적었다.

□ 가격동향(1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15,29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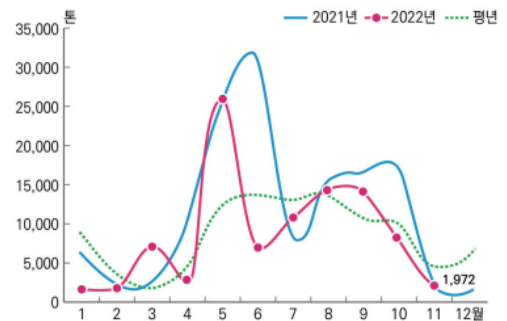
11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전월(5,919원) 대비 11.2% 상승한 kg당 6,579원이었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전월(18,420원) 대비 22.8% 상승한 kg당 22,617원이었다.

오징어(냉동)의 도매가격은 kg당 9,939원으로 전월(9,187원) 대비 8.2% 상승하였으나, 소비자 가격은 kg당 15,293원으로 전월(15,137원)과 비슷했다.

이는 공급 감소에도 재고량이 많았으며 정부 비축 수산물의 상시방출 및 대형소매점 할인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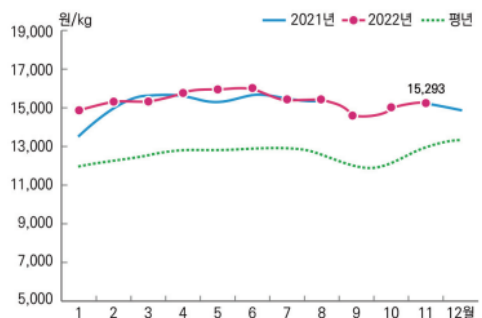
〈오징어 생산량 추이〉



주 : 2022년 11월은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해양수산부, 잠정치는 당 센터 추정 결과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주 : 2022년 11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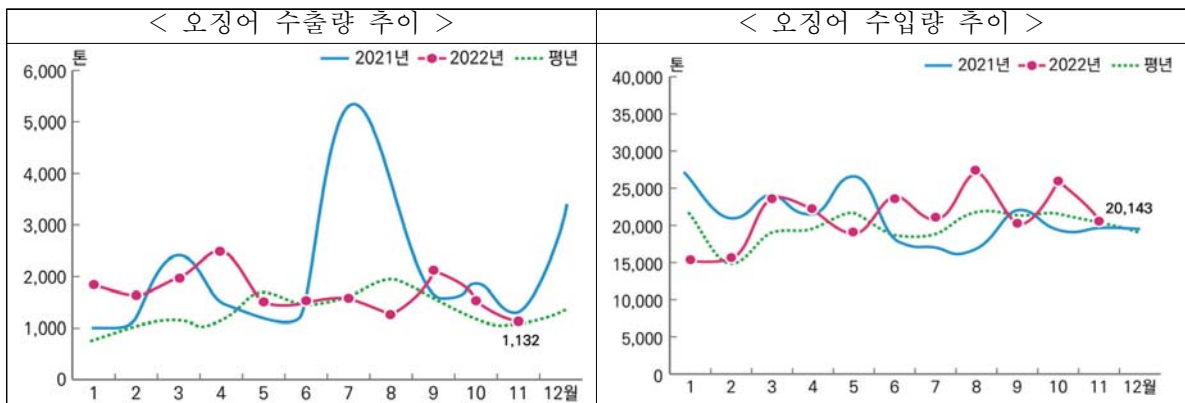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1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21% 감소한 2만 143톤)

11월 오징어 수출량은 1,132톤으로 전월 대비 27.1% 감소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851톤, 기타 제품은 281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49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국 290톤, 일본 96톤 등으로 나타났다.

11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21.4% 감소한 2만 143톤으로, 작년 및 평년과 비슷했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9,816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산 7,479톤, 칠레산 1,47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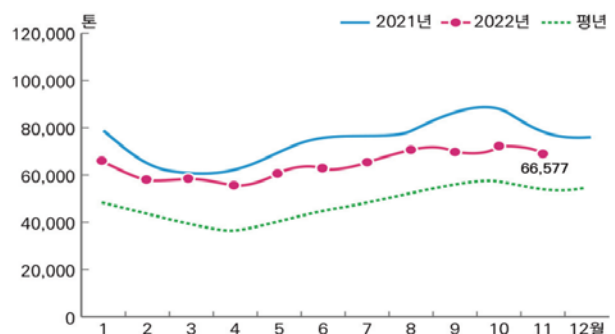
11월까지의 누적 수입량은 23만 2,161톤으로 작년과 비슷했고 평년 동월보다는 5.7% 많았다.



□ 재고동향(11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보다 8% 감소한 6만 6,577톤)

11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생산량 및 수입량이 감소하며 전월 대비 8.1% 줄어든 6만 6,577톤이었다.

12월에도 연근해 생산 및 원양 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오징어 재고량은 11월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12월호



11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반입량 대폭 증가, 소비자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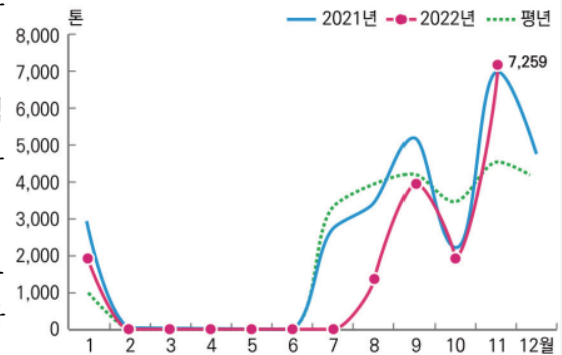
□ 생산동향(11월 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7,259톤)

11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7,259톤으로 전월(1,877톤)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및 평년 동기에 비해서도 각각 3.6%, 59.5% 많았다.

그러나 올해 조업 시작이 늦어짐에 따라 누적 어획량도 적어, 11월까지 누적 반입량은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31.1%, 20.9% 줄어든 1만 6,224톤이었다.

한편, 11월 30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1만 8,328톤으로 작년(25,725톤)에 비해 28.8% 적었다. 또한, 11월 말까지 쿼터 소진율은 작년(90.6%)보다 적은 64.3%였다.

〈명태 생산량 추이〉



주 : 2022년 11월은 잠정치임
자료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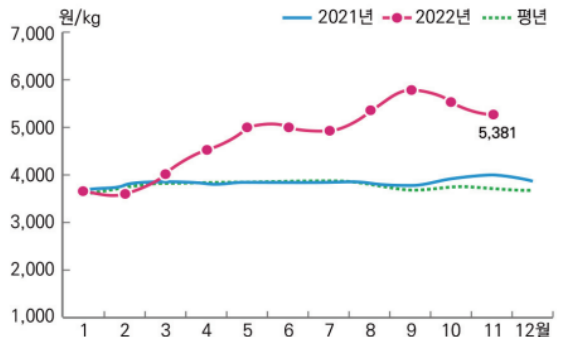
□ 가격동향(1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3% 하락한 kg당 5,381원)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381원으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대형소매점을 중심으로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비롯한 다양한 할인행사가 계속되었으며, 가격이 형성되지 않던 일부 전통시장에서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월에 이어 하락했다.

한편, 1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0.8% 하락한 kg당 2,452원이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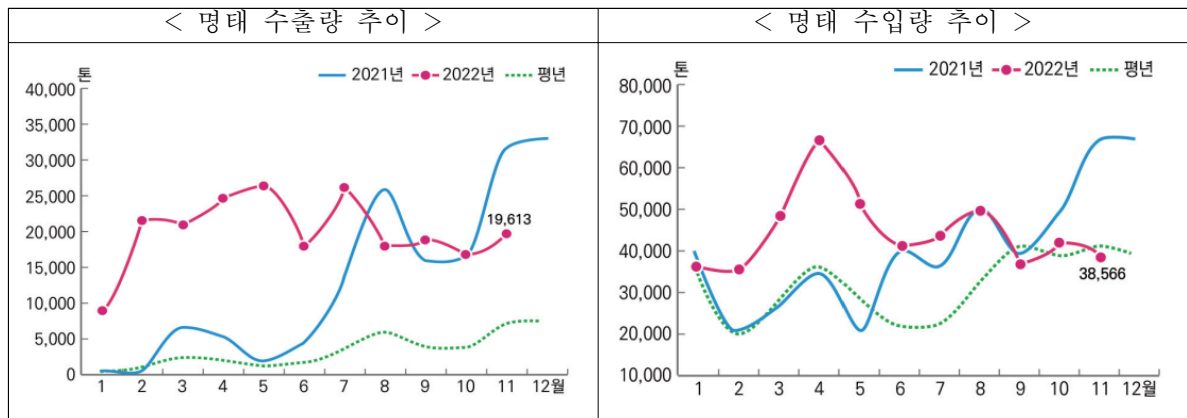
주 : 2022년 11월은 잠정치임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1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7% 감소한 3만 8,566톤)

11월 명태 수출량은 1만 9,613톤으로 전월(16,609톤) 대비 18.1%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출량이 1만 9,069톤으로 전월(15,365톤) 대비 증가했으며, 베트남으로 150톤 등이 수출되었다. 평년에 비해서는 세 배 이상 많았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 38.0% 적었다.

명태 수입량은 3만 8,566톤으로 전월(41,663톤) 대비 7.4% 감소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42.4%, 8.3% 적었다.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8,775톤, 미국산 냉동연육 7,014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6,812톤 등의 순이었다. 11월까지 누적 수입량은 49만 254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5.6%, 36.5%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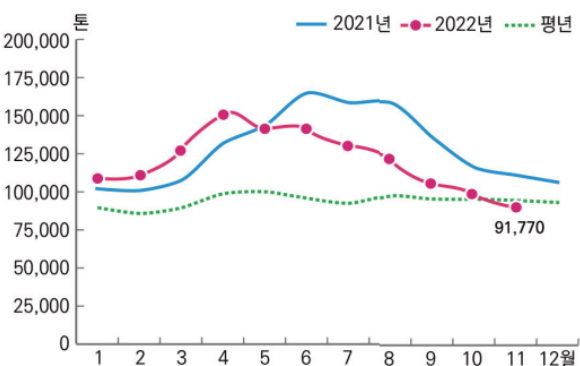


□ 재고동향(11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9만 1,770톤으로 전월(96,262톤) 대비 4.7% 감소했다.

이는 반입은 늘었으나 수입이 감소했으며, 수출은 증가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재고량은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17.3%, 2.2% 적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관측 12월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상어 보존조치 합의

나일강 주무관, 기술이행위 부의장 선임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상어 보존조치 개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년부터 연승어선의 낚시바늘에 걸린 상어는 수중에 둔 상태로 어구를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연승 어구 중에서 상어 혼획을 유발하는 소재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FAO가 올해 9월에 채택한 전제에 관한 자발적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도 전제에 관한 조치를 내년에 개정하기로 합의되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해양수산부 나일강 주무관이 기술이행위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기술이행위는 회원국 준법조업 여부를 평가하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의 보존관리조치 규정을 해석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19년부터 총회 의장직을 수행한 김정례 주무관은 4년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정치망 어업의 태평양 참다랑어 부수어획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태평양 도서국과 해양수산 국제협력 회의 개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과 세 번째 만남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피지 수바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7월 조승환 장관이 유치활동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피지를 방문하고, 10월 태평양 12개 도서국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태평양 도서국 고위급과 만나는 세 번째 자리이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피지 수산부 장관, 투발루 수산통상부 장관, 주피지 태평양 도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양수산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부산광역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국립수산

과학원, 한국선급, 극지연구소 등이 함께 참석했다.

대표단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하는 ODA 신규사업인 △해수 온도차 발전기 보급과 담수화·수경 재배 기술 이전, △소규모 어항·어업훈련센터 건립,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교육, △여성 해기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소개하고, △태평양 도서국 해양과학기지 설립 제안,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소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투발루) 수산자원 보존과 어업인 지원 정책 소개, △(사모아) 해양 산성화 관측 기술 지원 ODA 사업 진행 현황, △(키리바시) 수산업 발전 협력 필요 분야, △(피지) 수산양식 연구소 재건 제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조성 법적근거 마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 지원사업 자금 조성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현행 운영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건조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성된 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 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원양어선 안전 사고 예방과 원양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제도 도입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상속받거나 매입·임차하는 경우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신청 없이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 어선에 부과된 권리, 의무의 누락은 방지하면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매입·임차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③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물기구에서 받은 어획할당량 배분 시 원양업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종, 해역 등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배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어획할당량 배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배분에 대한 원양선사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원양선사 등 항만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획물을 실은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는 경우 종전에 입항 48시간 전까지 입항신고를 하던 것을 입항 24시간 전까지로 입항신고 기한을 완화한다.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 선정

겨울 보양음식

해양수산부가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선정했다. 엄동설한의 추위를 이겨낼 겨울 보양음식을 찾는다면 대구와 굴 요리를 빼놓을 수 없다. 대구와 굴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살이 차오르고 맛이 좋아지는 대표 겨울 수산물이기 때문이다.

대구는 어린이의 성장과 어르신들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류신,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

부하며, 겨울철 추운날씨로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과 피로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개선 해주는 함황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맛이 담백하여 무, 대파 등을 넣고 끓인 시원한 탕이나 찜으로 주로 먹지만 대구살을 살짝 구워 브로콜리, 양파 등 각종 야채를 곁들여 스테이크로 먹어도 그 맛이 별미다.



북극점에서 남극 내륙까지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 관계부처, 첫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 수립

남극과 북극을 포함해 극지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극지활동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극과 북극을 포괄하고, 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국제협력, 인력양성까지 극지활동 전반에 대한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위한 극지선도국가: 미지를 향한 도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남극과 북극에서의 영역 탐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남극에 내륙연구 기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본격 건설을 추진해 2030년 세계 6번째로 내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극 내륙기지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이탈리아, 중국 등 6개 국가에서 5개를 보유하고 있다.

빙하의 2천m 아래에 있는 호수인 빙저호와 3천m 깊이의 심부빙하를 시추해 지구의 과거를 규명하고 2026년까지 1만5천톤급의 제2쇄빙연구선을 건조해 아시아 최초로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한다는 목표다.

두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북극 전역의 해빙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위성을 개발

하고 2027년까지는 남극 전역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 2030/2050/2100년의 해수면 상승 예측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일정이다. 또한 대기와 해양, 해빙 등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북극발 한반도 재해기상 예측도 추진한다. 극지 산업 기반도 마련해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극한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오는 2026년까지 북극에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을 개발하고 2027년에는 북극권 친환경 수소에너지 기반 탄소제로 연구인프라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극지 생물자원을 활용해 신규 의약품질을 확보하는 등 해양 바이오 산업 활성화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체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법정부 극지정책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북극 과학장관 회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 다원적 국내외 협력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간의 극지활동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극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의 극지연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국내에 극지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한 연구·실험 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차세대 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과제와 인프라의 공동활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제1차 당사국총회, 한국 인천 개최

보존·관리 조치 수립 위한 과학 관련 사항 내년 논의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2개 옵서버 기관(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자를 포함해 60여명이 대면 참석했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번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기존 임시 과학조정그룹(PSCG)을 계승하는 기구로서 과학조정그룹(SCG)을 운영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

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회의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당사국들은 협정수역 내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관련 사항들을 내년 과학조정그룹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임시 부의장이었던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 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미 FDA, 영유아 수산물 섭취 안전성 연구 착수

성장·발달간 연관성도 대상...연구결과 따라 섭취기준·지침 설정

미 FDA는 지난 10월 국립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의 독립 연구를 통해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수산물 섭취가 미치는 영향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 FDA에 따르면 수산물 영양 및 독성(수은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산식품 섭취가 영유아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향후 적절한 섭취 지침과 규제 수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국립 과학·공학·의학 아카데미 임시 전문가위원회는 연구를 위해 △식이 섭취 및 수산식품 구성에

관한 데이터 평가 △수산물 섭취와 영유아 성장 및 발달에 관한 수산물 영양학 및 독성학 부문 과학 문헌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과학적 증거를 종합하기 위한 접근 방식 개발 및 해당 접근 방식을 적용한 연구결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결론 검토 등의 안전성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산물 오염물질 또는 중금속 제한 기준이 설정될 여지가 있어 우리 수산업계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우리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 개막

김·참치 선도

해양수산부는 2022년 12월 9일 기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여, 역대 최초로 4조원(연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나라 수산식품은 전세계 139개 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26.1억 달러) 15.0%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2억 달러)과 참치(5.8억 달러)가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참치는 1957년 '지남호'의 인도양 시험어업을 시작으로 1963년에는 일본 수출 개시하여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치 산업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선단을 구축하고 태평양, 대서양 등 해외어장을 확보하여 성장 기반을 다졌으며, 대표기업인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회사인 스타키스트(StarKist), 2011년 아프리카 세네갈의 스카사(S.C.A.SA) 등을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태, 대구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유망 품목인 굴과 전복도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굴, 전복 등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굴레벗은 수협, 새출발 다짐

수협은행 중심 금융지주체제 전환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월 23일 중앙회 2층 강당에서 공적자금 조기상환 기념식을 열고 '수협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 비전에는 △금융사업 지배구조 개편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확대 △중앙회 사업 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중점 추진사항이 담겼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중앙회는 먼저, 어업인을 비롯해 전국 91곳의 수협조합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입자본 대비 성

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자산운용사 등 소형 비은행 금융회사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그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했던 은행 배당금 등을 토대로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규모를 연간 2,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밖에도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인수를 추진하고,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저가형 활어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사업도 추진한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상무	신현애	589-1602	해외협력본부장
이사	이형균	589-1603	경영지원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자금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 협력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기획홍보부	이형균 이사	589-1607	총괄(검직)		정운경 사원	589-1615	참치연승	
		김영수 과장	589-1608	기획, 홍보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오징어, 기타트롤 북양, 쾡치
		김민재 사원	589-1609	원양뉴스, 생산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7	
	조성주 과장	589-1620	원양산업발전 TF팀 간사	이승환 사원	589-1618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부산지부	-	이성재 이사	(051)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최동환 주임	589-1619	노사, 선원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기구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	해외진출지원팀	-	044-868-7836	ODA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extra.co.nz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52호

발행 : 2022년 1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